

2020

독립음악인 실태조사

2020 Survey Report on Indie Musicians



목 차

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5
2. 조사 방법	5
3. 조사 대상	5
4. 조사 기간	5
5. 조사 내용	6
6. 조사 설계	7

2장 온라인 설문조사 주요결과

1.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분야	9
2. 주 활동 음악분야 직업	9
3. 주 활동 음악분야 입문 이후 기간	10
4. 음악활동 고용형태(전업)	10
5. 음악활동 고용형태(겸업)	11
6. 음악활동 외 직업분야 및 고용형태	12
7. 음악활동 외 직업 분야 및 업무내용(겸업)	13
8. 음악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겸업)	14
9. 겸업 음악인 주 평균 음악활동 투입시간	15
10. 지난 1년간 1회 공연으로 들어온 최저수입과 최고수입	16
11. 지난 1년간 1회 공연으로 들어온 수입에 따른 공연의 러닝타임과 연습기간	17
12. 음악활동 관련 계약 체결(경험 및 형태)	19
13. 음악활동 관련 계약 내용 중 연습기간이 포함된 경우	19
14. 부당한 계약 체결	20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여부	21
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참여도	22
17. 사회보험 가입률(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23
18. '코로나19' 관련 음악노동현장에서 느끼는 피해체감도	24
19. '코로나19' 관련 음악인의 가구 총 수입 변화	24
20. '코로나19' 관련 음악인의 음악활동 개인 수입 변화	25
21. 2019년 1년간 음악활동 발표(공연, 앨범 등) 횟수	26
22. 2020년 상반기 음악활동 발표(공연, 앨범 등) 횟수	26
23.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긴급지원정책 지원 여부	27
24.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지원방안	29

3장 온라인 설문조사 전체통계표

1.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분야	31
2.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분야의 직업	31

3.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32
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32
5. 응답자 연령대	33
6. 응답자 성별	33
7. 주 활동 분야에 입문 후 활동기간	34
8. 전업 음악인 종사 여부	34
9. 전업 음악인 음악활동 직업의 고용형태 [복수응답]	35
10. 겸업 음악인 음악활동 직업의 고용형태 [복수응답]	35
11. 겸업 음악인 음악활동 외 직업의 예술분야 여부	36
12. 겸업 음악인 음악활동 외 직업의 고용형태 [복수응답]	36
13. 겸업 음악인 음악활동 외 직업의 업무내용 [복수응답]	37
14. 음악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37
15. 겸업 음악인 음악활동에 투입되는 주 평균 노동시간	38
16. 겸업 음악인 음악 외 활동에 투입되는 주 평균 노동시간	38
17. 지난 1년간 공연 실연 경험 유무	38
18. 지난 1년간 1회 공연으로 들어온 최저수입	39
19. 최저수입 공연의 러닝타임	39
20. 최저수입 공연의 연습기간	39
21. 지난 1년간 1회 공연으로 들어온 최고수입	40
22. 최고수입 공연의 러닝타임	40
23. 최고수입 공연의 연습기간	40
24. 음악활동 노동 진행시 체감하는 계약 체결 중요도	41
25. 지난 1년간 음악활동 관련 계약 체결 유무	41
26. 지난 1년간 음악활동 관련 계약 체결 건수	41
27. 지난 1년간 음악활동 관련 체결한 계약의 형식 [복수응답]	42
28. 구두 계약 체결시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42
29. 서면 계약 체결시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 유무	42
30.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건수	43
31. 계약 내용에 연습기간이 포함된 계약 체결 건수	43
32. 지난 1년간 체결한 계약 중 부당계약 여부	43
33. 계약이 부당하다고 느낀 이유	44
3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활동증명 등록 여부	44
35. 활동증명을 미등록한 이유 [복수응답]	44
36.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사업 지원 경험의 여부	45
37. 지원했던 사업의 종류 [복수응답]	45
3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선정(수급) 여부	46
39. 선정된 지원사업의 종류 [복수응답]	46
40.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험 종류	47
41. '코로나19'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의 체감도	47
42. 2019년 연간 가구 수입(가구원 전체)	47
43. 2019년 음악활동 관련 개인 수입	48
44. 2019년 예술활동 발표 횟수	48

45. 2020년 상반기 가구 수입(가구원 전체)	48
46. 2020년 상반기 음악활동 관련 개인 수입	49
47. 2020년 상반기 예술활동 발표 횟수	49
48. 2020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예술인(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정책 인지 여부	49
49.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지원 여부	50
50. 지원정책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50
51. 지원자격이 안 된 이유 [복수응답]	50
52. 특히 어려웠던 서류 과정 [복수응답]	51
53.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사업의 선정 여부	51
54. 선정된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복수응답]	51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음악인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방안 [복수응답]	52

4장 2020 뮤지션유니온 독립음악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2020년 대한민국, 독립음악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54
-------------------------------------	----

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방법
3. 조사 대상
4. 조사 기간
5. 조사 내용
6. 조사 설계

ⅢⅢⅢ 2020 독립음악인 실태조사 ⅢⅢⅢ

1. 조사 목적

- 「2020년 독립음악인 실태조사」는 독립음악인들의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음악산업 내의 공정계약 체결을 위한 독립음악인 표준계약서의 양식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독립음악인들을 포함한 예술인들의 **권익보호와 기본적인 권리신장, 복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 직접 대면 간담회 및 직접 대면 심층인터뷰,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

3. 조사 대상

- 조사대상 :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의 조합원을 포함한 10개 분야(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실연자(연주), 실연자(가수), 엔지니어 및 기술 관련 스태프, 프로듀서, 공연 및 음반기획자, 음악예술 관련 관리자, 기타)의 독립음악인
- 조사지역
 - 오프라인 간담회 및 심층인터뷰 : 서울·경기지역
 - 온라인 설문조사 : 전국 시·도 및 해외
- 조사규모
 - 오프라인 간담회 : 2회 (1회 9명, 2회 14명)
 - 심층인터뷰 : 1회 (4명)
 - 온라인 설문조사 : 151명

4. 조사 기간

- 조사 기준 시점 : 2020년 7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 조사 실사 기간 : 2020년 9월 9일 ~ 2020년 9월 27일

5. 조사 내용

1) 음악활동 분야 및 내용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 활동 분야 및 활동 기간

2) 노동형태 및 노동환경

- 전업음악인 여부
 - o 음악활동 직업의 형태(전업음악인)
 - o 음악활동 직업, 그 외 직업의 형태 및 겸업 이유
 - o 음악활동 관련 및 그 외 직업활동 관련 노동시간
- 실연을 하는 음악인의 최저, 최고 공연수입 및 그에 따른 공연시간과 연습기간

3) 계약 및 복지

- 지난 1년간 음악활동 관련 계약 체결 현황
 - o 계약 체결 건수 및 서면 계약 비율
 - o 전체 계약 중 관공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 비율
 - o 전체 계약 중 부당, 부적절한 계약 여부 및 내용
 - o 전체 계약의 실제 내용(기간, 형태, 금액 및 연습기간 포함 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활동증명 등록 현황
 - o 등록비율 및 미등록 이유
 - o 등록된 음악인의 복지/지원사업 참여율 및 사업의 종류
- 사회보험 가입 유무 및 종류

4) 코로나19 전후의 소득 및 활동

- 코로나19 관련 음악활동 피해
 - o 피해체감도
 - o 피해내용(공연취소, 출연료 미지급 등 직접적인 음악활동의 피해, 음악강사 등 음악활동 관련 직종의 피해)
 - o 피해규모(피해형태별 구체적인 금액)
- 2019년 대비 2020년의 가계총수입 변화
- 2019년 대비 2020년의 음악활동 관련 수입의 변화
- 2019년 대비 2020년의 음악활동 발표 횟수의 변화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수급 여부 + 개선방향

6. 조사설계

1) 목표모집단

- 전국의 독립음악인

2) 조사모집단

-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의 조합원으로 등록된 독립음악인 및 온라인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모든 독립음악인

3) 독립음악인 활동분야

- | | |
|--------------|-------------------|
| ①작사가 | ②작곡가 |
| ③편곡자 | ④실연자(연주) |
| ⑤실연자(가수) | ⑥엔지니어 및 기술 관련 스태프 |
| ⑦프로듀서 | ⑧공연 및 음반기획자 |
| ⑨음악예술 관련 관리자 | ⑩기타 |

4) 조사 규모 및 표본 설계

-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대중음악 분야 710명(표본 예술인 5000명의 14.2%)
- 2020년 9월 현재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134명

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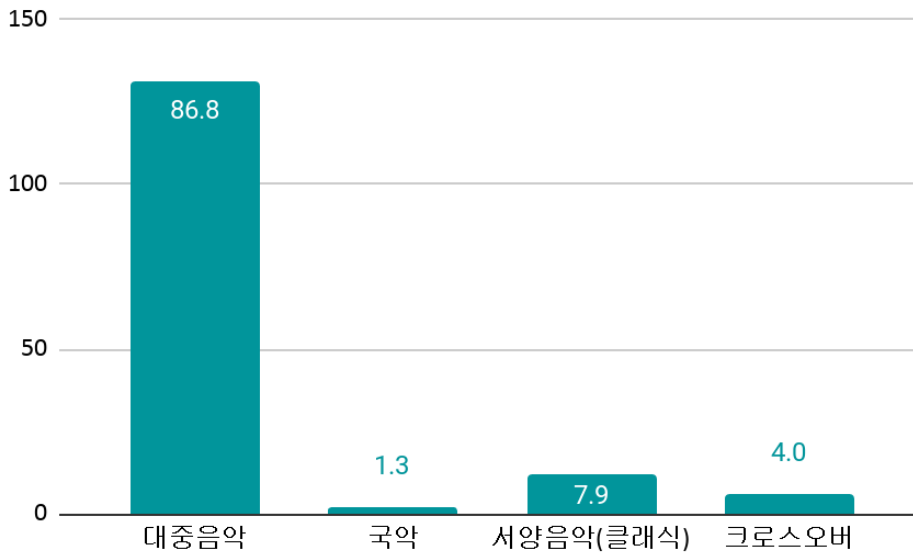
온라인 설문조사 주요 결과

1.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분야

⇨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분야는 '대중음악' 86.8%, '서양음악(클래식)' 7.9%, '크로스오버' 4.0% 순임

[그림 2-1]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 음악분야 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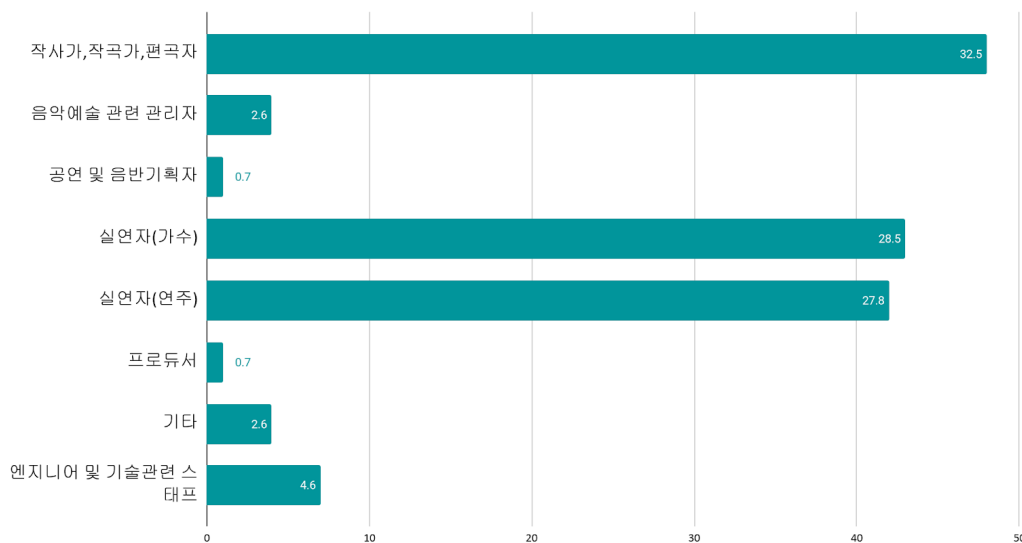


2. 주 활동 음악분야 직업

⇨ 주 활동 음악분야의 직업은 '작사가,작곡가,편곡자' 32.5%, '실연(가수)' 28.5%, '실연(연주)' 27.8% 순임

[그림 2-2] 주 활동 음악분야 직업 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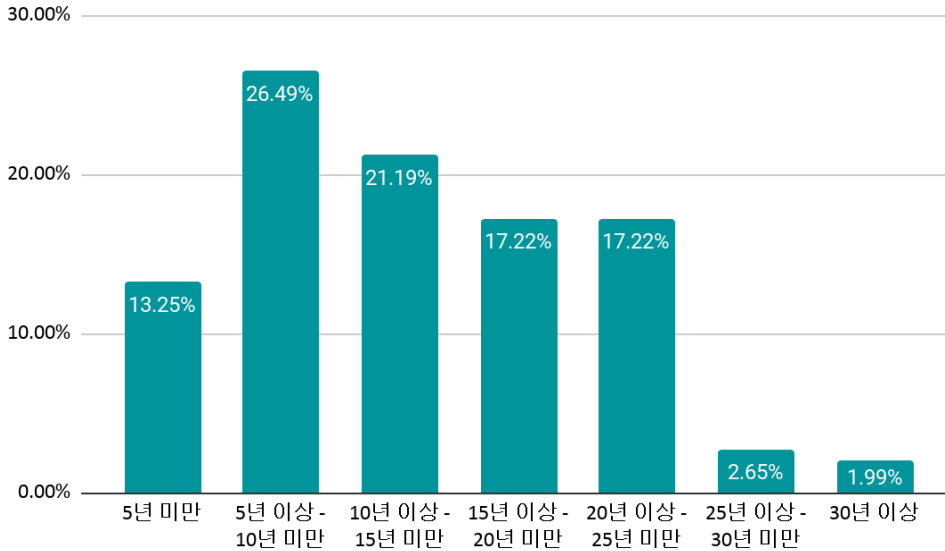


3. 주 활동 음악분야 입문 이후 기간

⇨ 주 활동 음악분야 입문 이후 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 26.49%, '10년 이상~15년 미만' 21.19%,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25년 미만' 17.22% 순임

[그림 2-3] 주 활동 음악분야 입문 이후 기간

(단위 : %)



4. 음악활동 고용형태(전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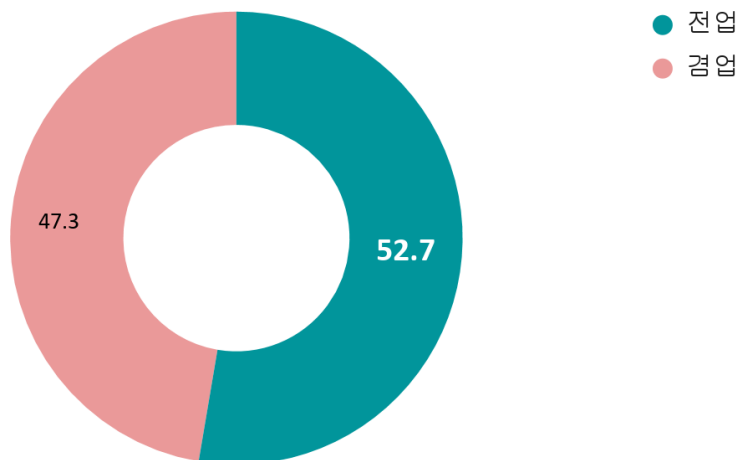
⇨ 응답자의 52.7%는 '전업 음악인'임

- 전업 음악인의 고용 형태는 '프리랜서(자유계약직)' 60.2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자)' 14.29%, '일용직' 8.16% 순임

[그림 2-4] 음악인의 겸업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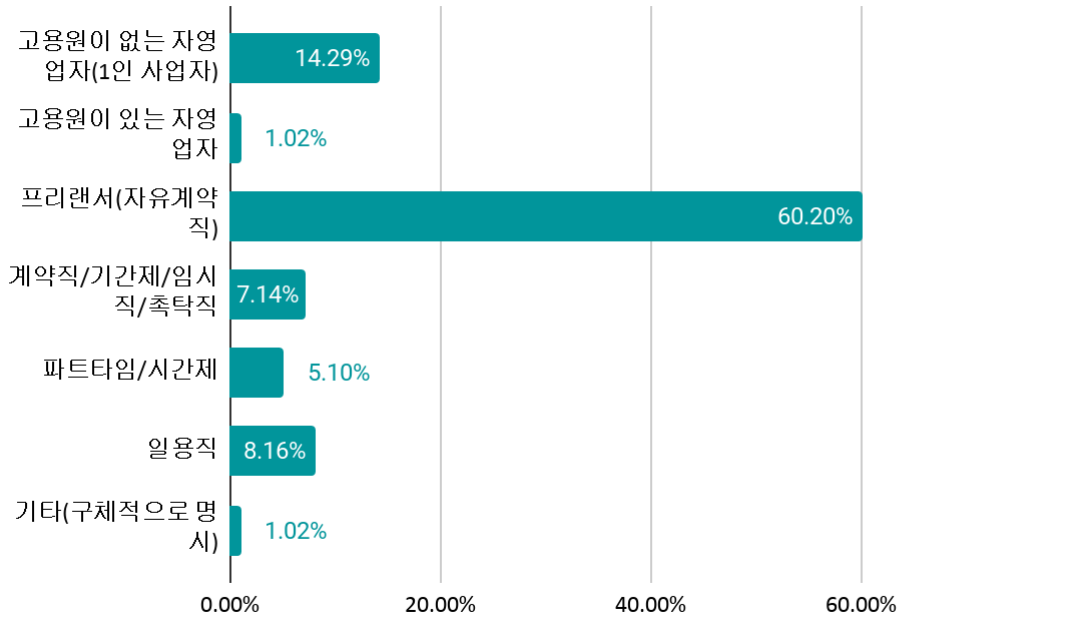
(단위 : %)

전업 52.7%



[그림 2-5] 음악인의 고용형태(전업) <복수응답>

(단위 : %)



5. 음악활동 고용형태(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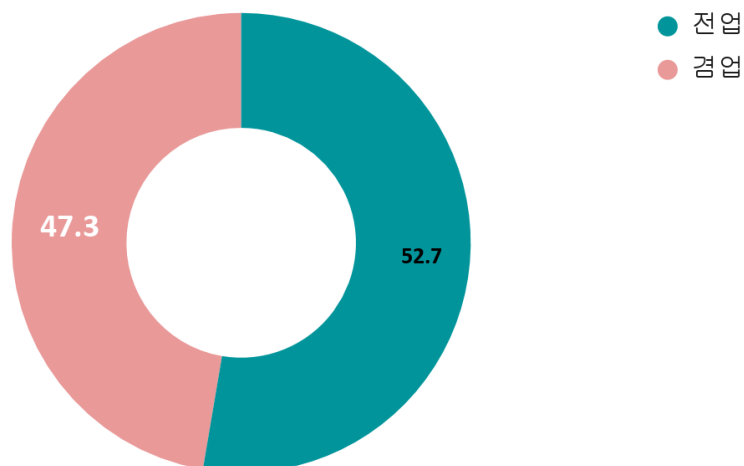
◊ 응답자의 47.3%는 '겸업 음악인'임

- 겸업 음악인의 음악활동 고용형태는 '프리랜서(자유계약직)' 55.2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자) 15.79%, '기타' 10.53% 순임

[그림 2-6] 음악인의 겸업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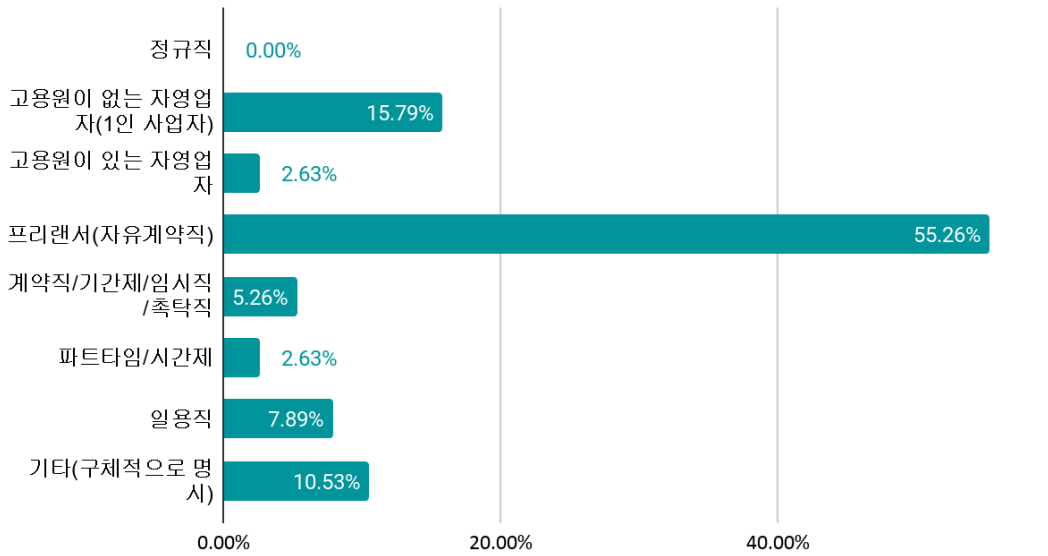
(단위 : %)

겸업 47.3%



[그림 2-7] 음악인의 고용형태(겸업) <복수응답>

(단위 : %)



※ 기타 의견으로는 '밴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음원 수익 외에 따로 페이를 받고 있지는 않음', '돈을 벌고있진 않고 공연 가끔합니다', '고용형태가 아님'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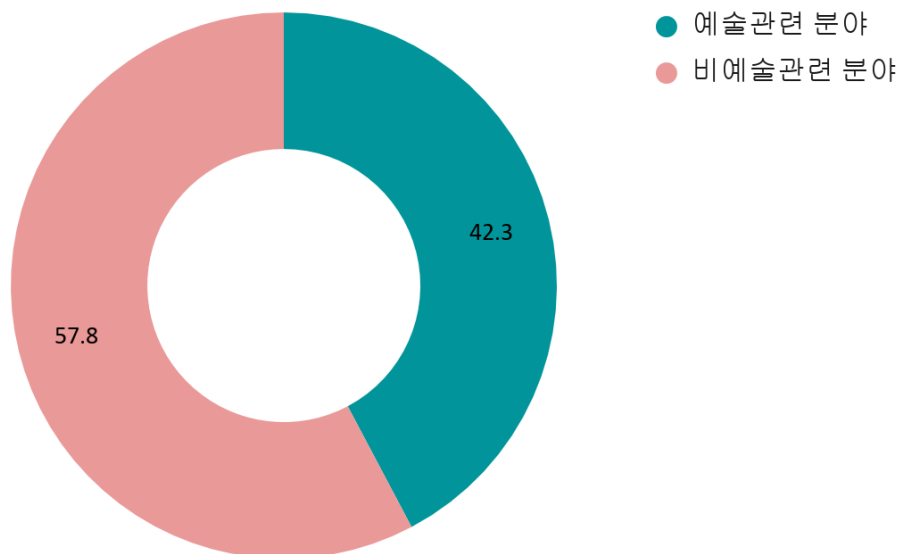
6. 음악활동 외 직업 분야 및 고용형태(겸업)

◊ 음악활동 외 직업 고용형태로 '프리랜서(자유계약직)' 24.10%, '계약직/기간제/임시직/축탁직' 22.89%, '정규직' 18.07% 순임

- 음악활동 외 직업의 분야는 예술관련 분야가 42.3%, 비예술관련 분야가 '57.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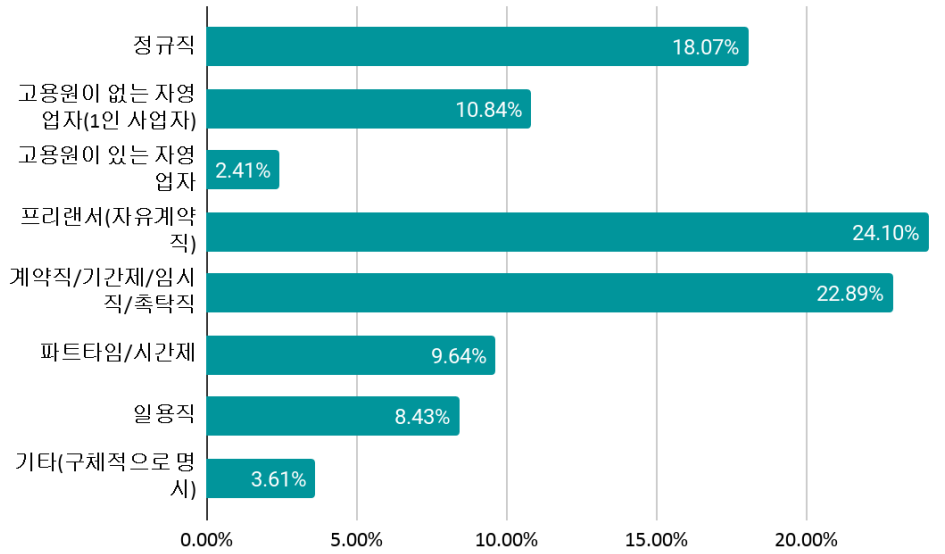
[그림 2-8] 음악활동 외 직업 분야

(단위 : %)



[그림 2-9] 음악활동 외 직업의 고용형태 <복수응답>

(단위 : %)



※ 음악활동 외 직업은 예술관련 직업과 비예술 관련 직업을 포함
기타 의견으로는 '대학원생', '방문학습지 교사'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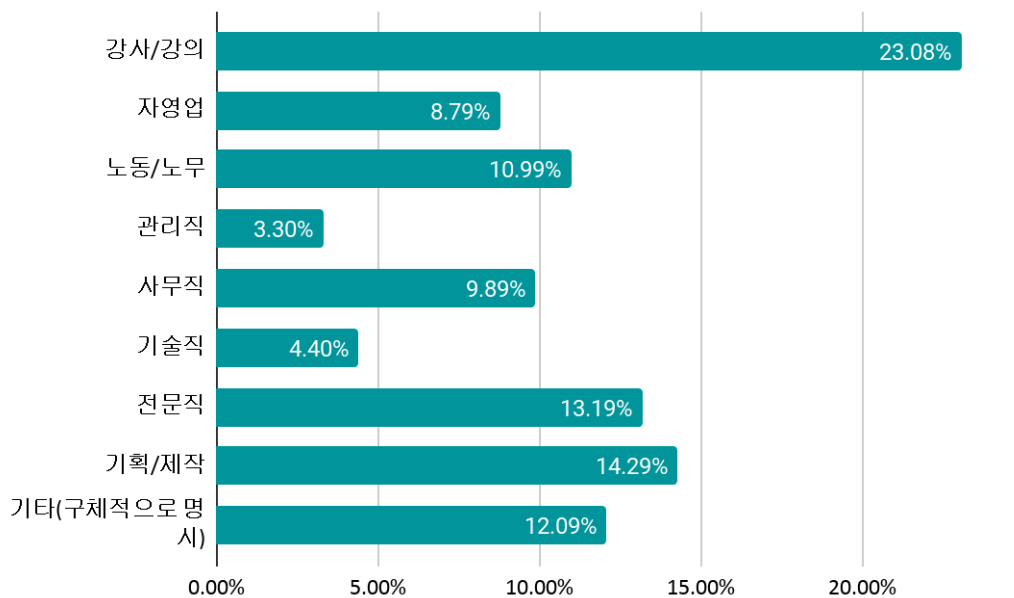
7. 음악활동 외 직업 분야 및 업무내용(겸업)

⇨ 겸업 음악인의 23.08%가 '강사/강의'로 음악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

- 음악활동 외 직업 업무는 '강사/강의' 23.08%, '기획/제작' 14.29%, '전문직' 13.19% 순임

[그림 2-10] 겸업 음악인의 음악활동 외 직업 업무내용 <복수응답>

(단위 : %)



※ 음악활동 외 직업은 예술관련 직업과 비예술 관련 직업을 포함

기타 의견으로는 ‘연습실관리’, ‘방송국 FD’, ‘카페점장’, ‘웨딩 사진 촬영’, ‘방문학습지 교사’, ‘사진작가’, ‘작가’, ‘고민상담’, ‘중고음반’, ‘방문학습지 교사’, ‘일용직 알바(행사 무대 렌탈등등), 행사기획팀(계약직)’ 등이 있음

8. 음악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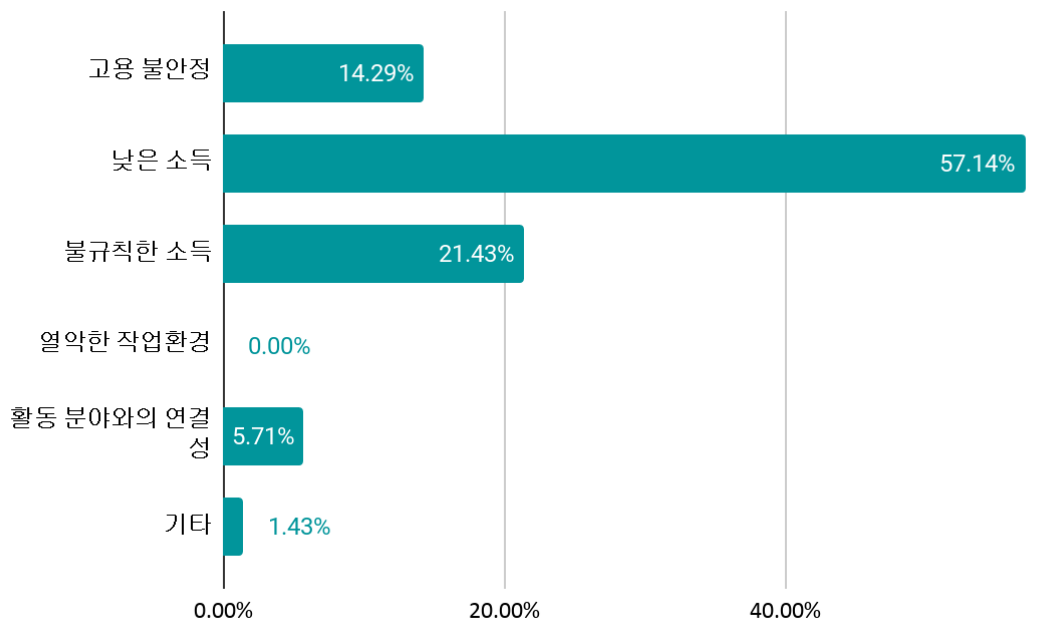
↳ 겸업 음악인의 78.57%는 ‘소득 문제’로 음악활동에 전념하지 못함

: ‘낮은 소득’ 57.14%, ‘불규칙한 소득’ 21.43%

- 음악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로는 ‘낮은 소득’ 57.14%, ‘불규칙한 소득’ 21.43%, ‘고용 불안정’ 14.29% 순임

[그림 2-11] 겸업 음악인의 음악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단위 : %)



※ 음악활동 외 직업은 예술관련 직업과 비예술 관련 직업을 포함

기타 의견으로는 ‘적성에 맞고 보람있는 일 중 하나’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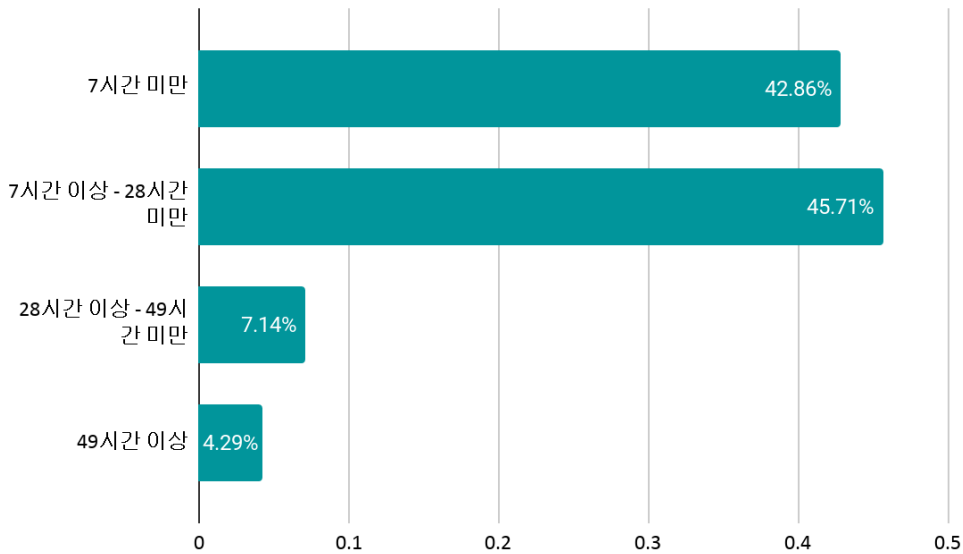
9. 겸업 음악인 주 평균 음악활동 투입시간

⇨ 음악활동 직업에 '평균 14.8시간', 음악활동 외 직업에 '평균 32.1시간' 투입함

- 음악활동 직업 투입 비율 31.6%, 음악활동 외 직업 투입 비율 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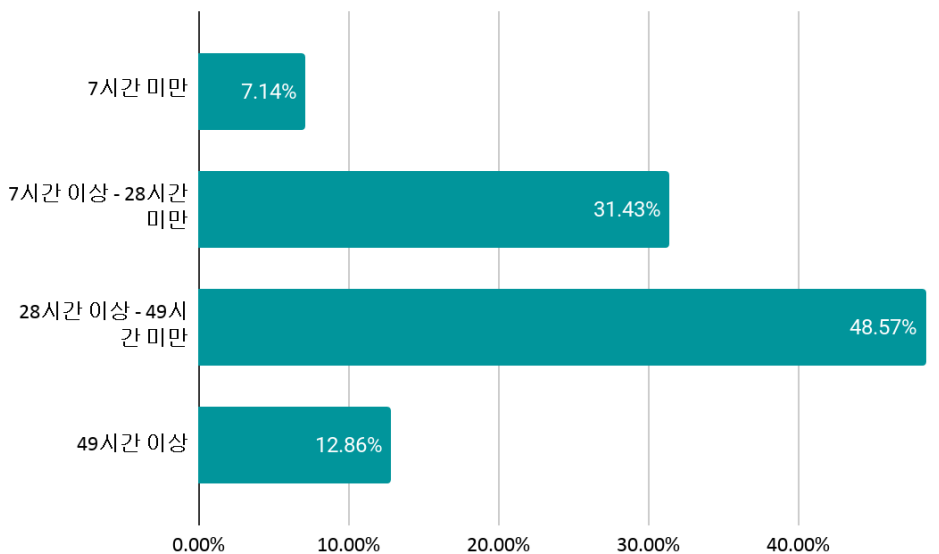
[그림 2-12] 겸업 음악인 주 평균 음악활동 투입시간

(단위 : %)



[그림 2-13] 겸업 음악인 주 평균 음악활동 외 직업 투입시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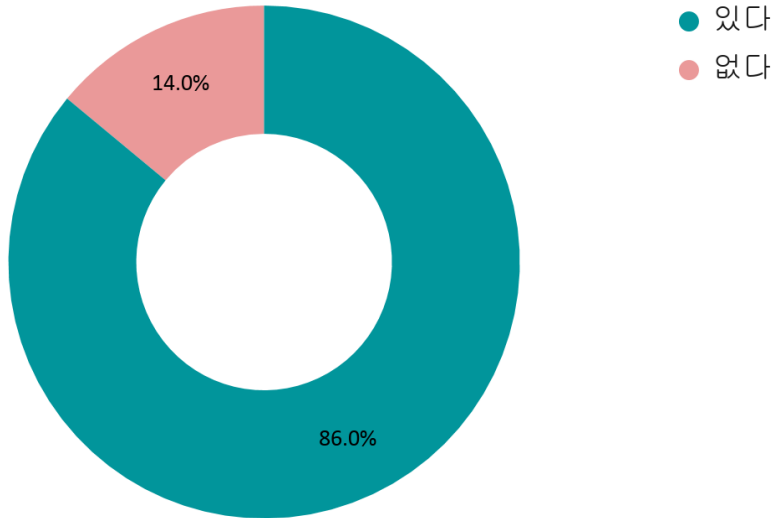
※ 음악활동 외 직업은 예술관련 직업과 비예술 관련 직업을 포함

10. 지난 1년간 1회 공연으로 들어온 최저수입과 최고수입

⇨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공연 실연 경험이 있고 최저수입 금액은 평균 '21.45만원' 중앙값은 '6.4만원', 최고수입 금액은 평균 '71.88만원', 중앙값은 '52.50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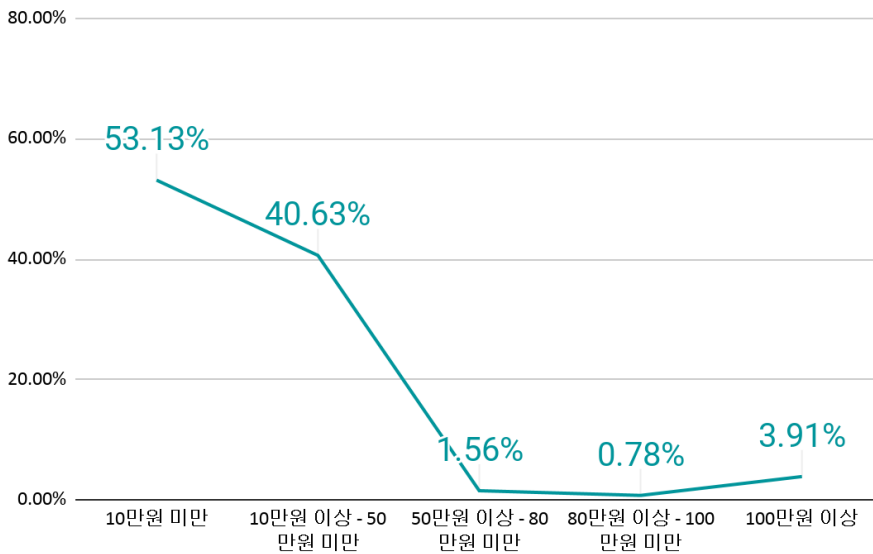
[그림 2-14] 지난 1년간 공연 실연 경험 유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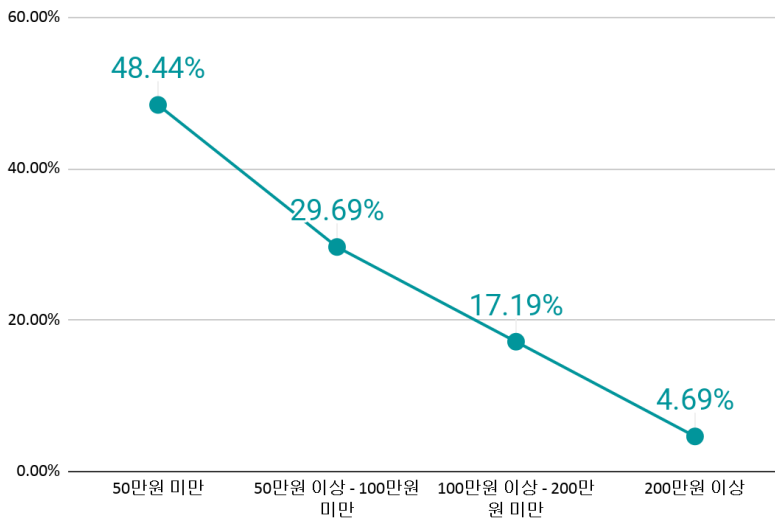
[그림 2-15] 지난 1년간 1회 공연으로 들어온 최저수입

(단위 : %)



[그림 2-16] 지난 1년간 1회 공연으로 들어온 최고수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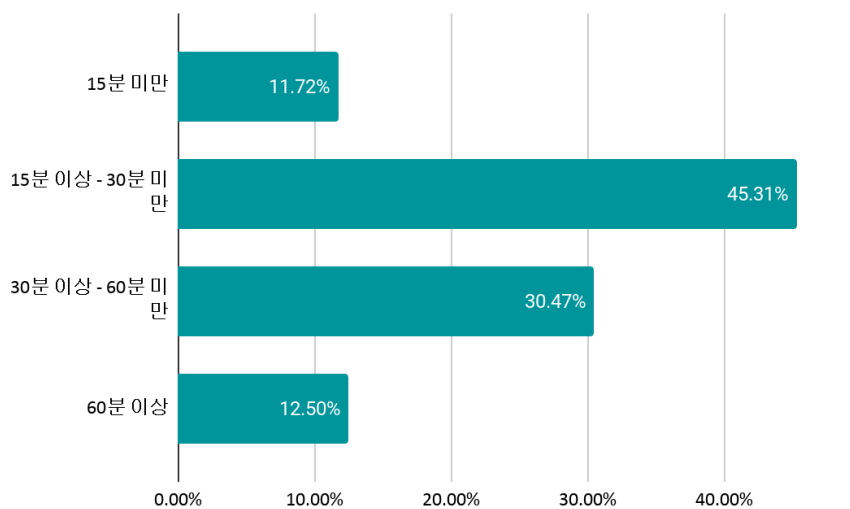
11. 지난 1년간 1회 공연으로 들어온 수입에 따른 공연의 러닝타임과 연습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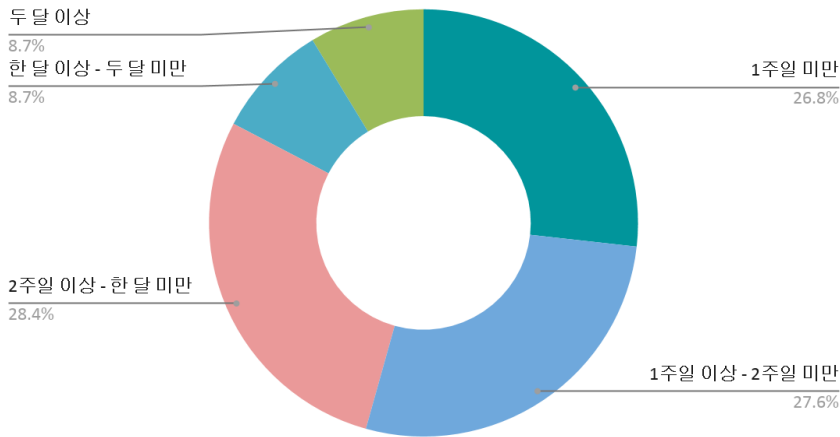
⇒ 1회 공연에 해당하는 러닝타임의 경우 최저수입의 공연은 평균 '34.16분', 최고수입의 공연 평균 '45.53분'임

- 1회 공연에 따른 연습기간의 경우 최저수입의 공연은 평균 '20.18일', 최고수입의 공연은 '27.55일'임

[그림 2-17] 지난 1년간 최저수입 공연의 러닝타임과 연습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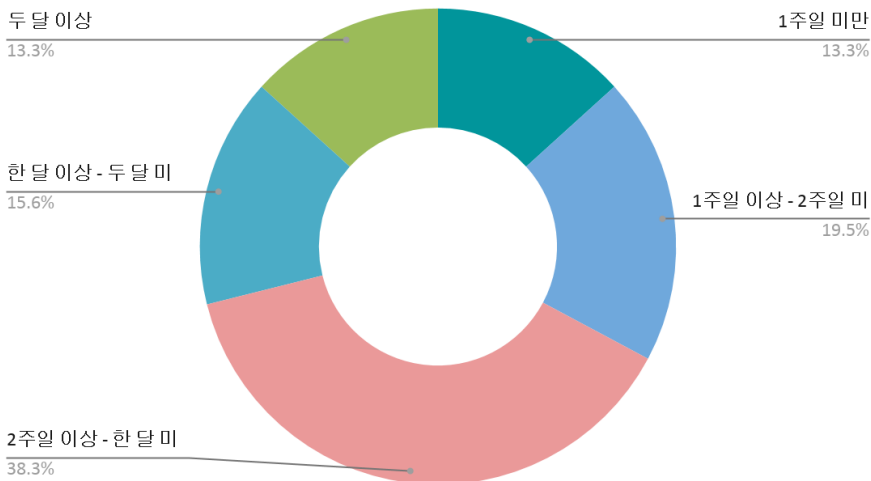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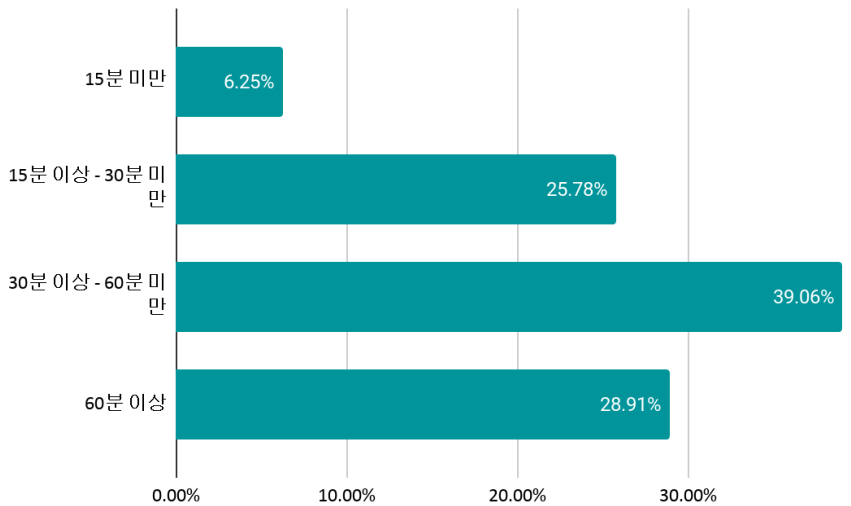
(단위 : %)





[그림 2-18] 지난 1년간 최고수입 공연의 러닝타임과 연습기간

(단위 : %)



※ 중앙값 : 모든 측정값을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하는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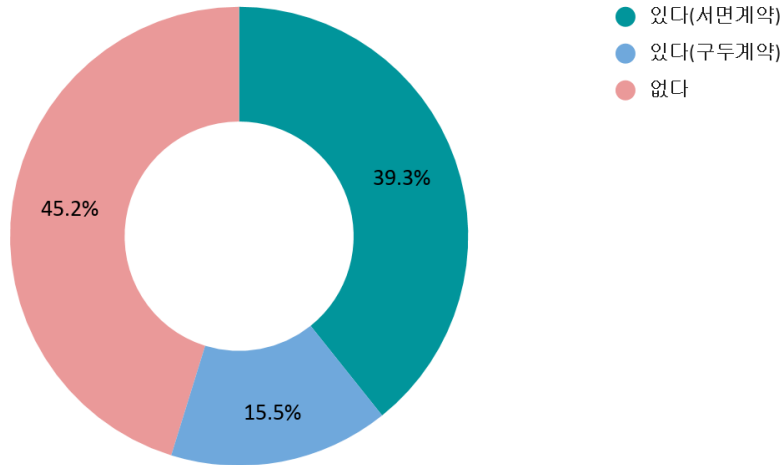
12. 음악활동 관련 계약 체결(경험 및 형태)

⇒ 음악활동 관련 계약 체결은 54.8%가 경험 '있다'고 응답함
 계약 중 서면계약은 71.6%,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은 28.4%임

[그림 2-19] 음악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

(단위 : %)

있다 54.8% / 없다 4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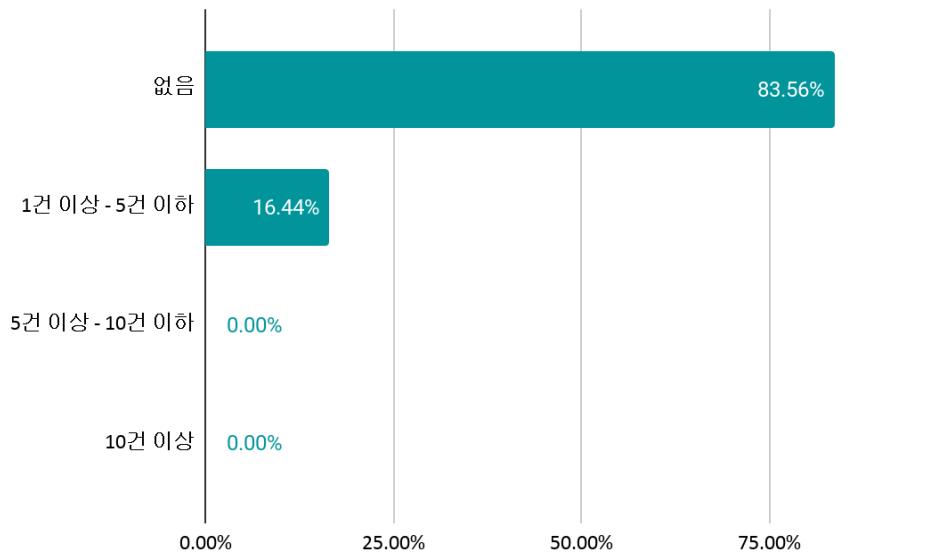


13. 음악활동 관련 계약 내용 중 연습기간이 포함된 경우

⇒ 음악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체결했던 계약 내용에 연습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1건 이상 5건 이하'가 16.44%임

[그림 2-20] 음악활동 관련 계약 내용 중 연습기간이 포함된 경우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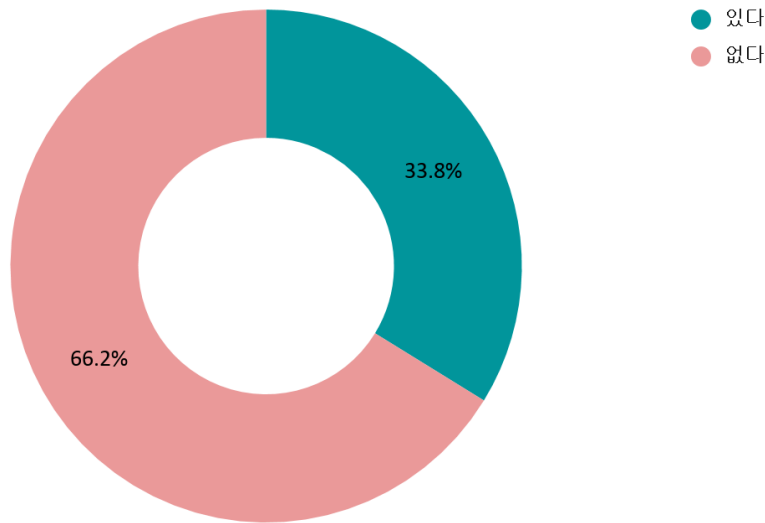
14. 부당한 계약 체결

↳ 지난 1년간 부당한 계약 체결 '경험 있음' 응답은 33.8%임

- 부당한 계약 내용으로는 '일방적/부당한 임금 규정/낮은 임금' 42.31%, '불확실/불합리한 업무 규정' 23.08%, '일방적/부당한 해고/계약해지' 15.3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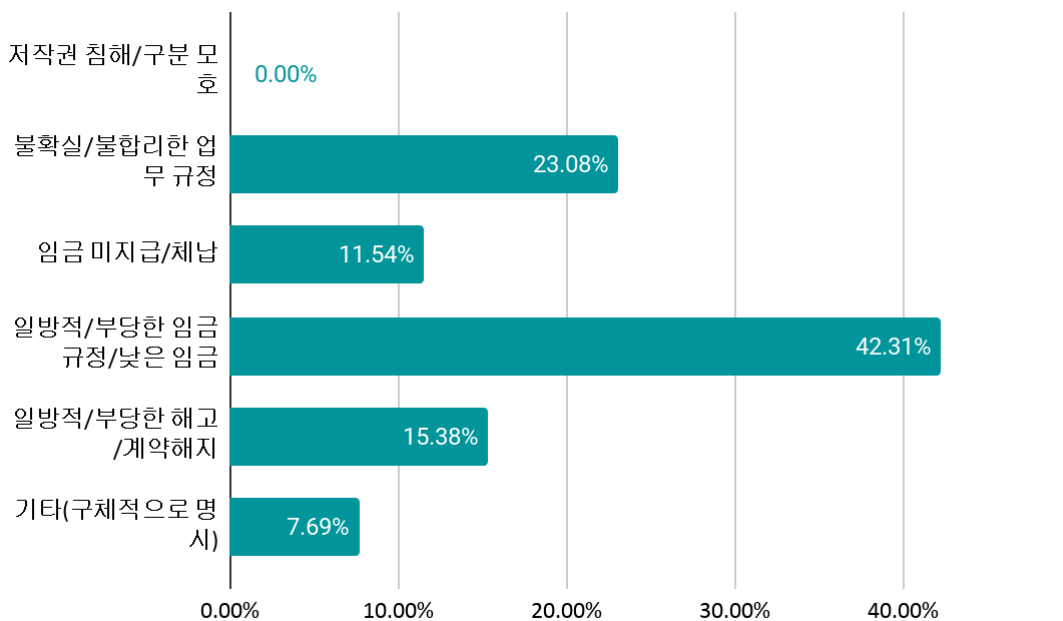
[그림 2-21] 부당한 계약 체결 경험

(단위 : %)



[그림 2-22] 부당한 계약 내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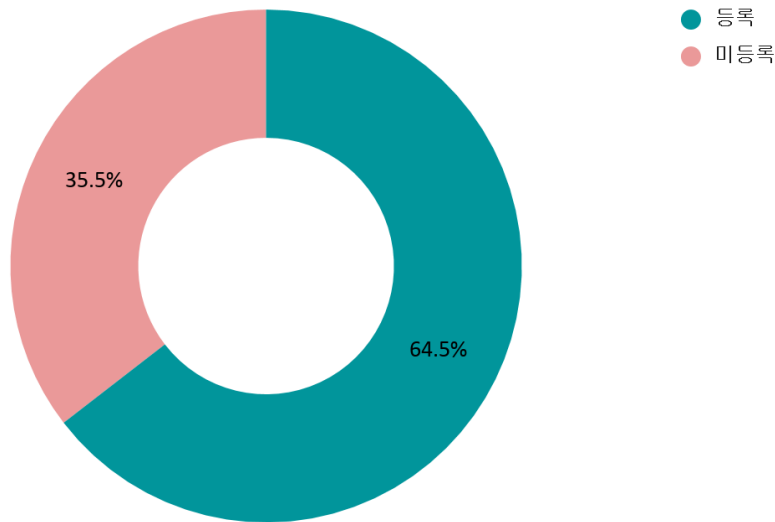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여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활동증명을 완료한 음악인은 64.54%임

- 미등록 음악인 중 44.6%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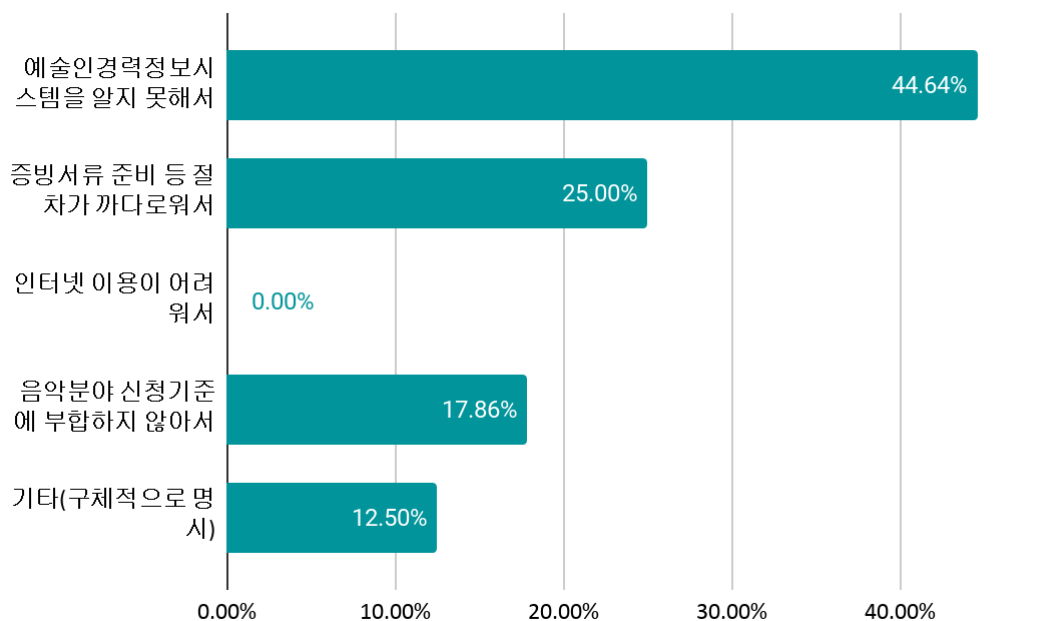
[그림 2-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활동증명 등록여부

(단위 : %)



[그림 2-2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활동증명 미등록 이유 <복수응답>

(단위 : %)



※ 기타 의견으로는 '일년마다 갱신이 귀찮아 하지 않게되었고, 특별한 장점이 없음', '자료보안요청에 기간놓침', '정부의 통제정책에 동의하지 않아서', '잘모르고 창작자가 아니어서'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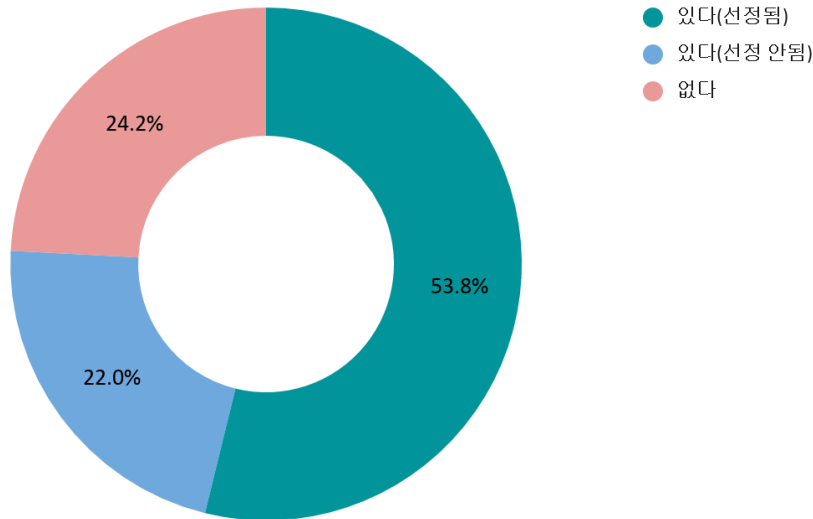
1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참여도

⇨ 예술인활동증명을 한 응답자 중 지원사업에 지원한 음악인은 75.82%이고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수급)한 음악인은 지원자 중 71.01%임

- 참여(수급)한 사업은 '창작준비금 지원' 4.86%, '예술인 패스' 28.57%, '예술인 파견지원' 11.2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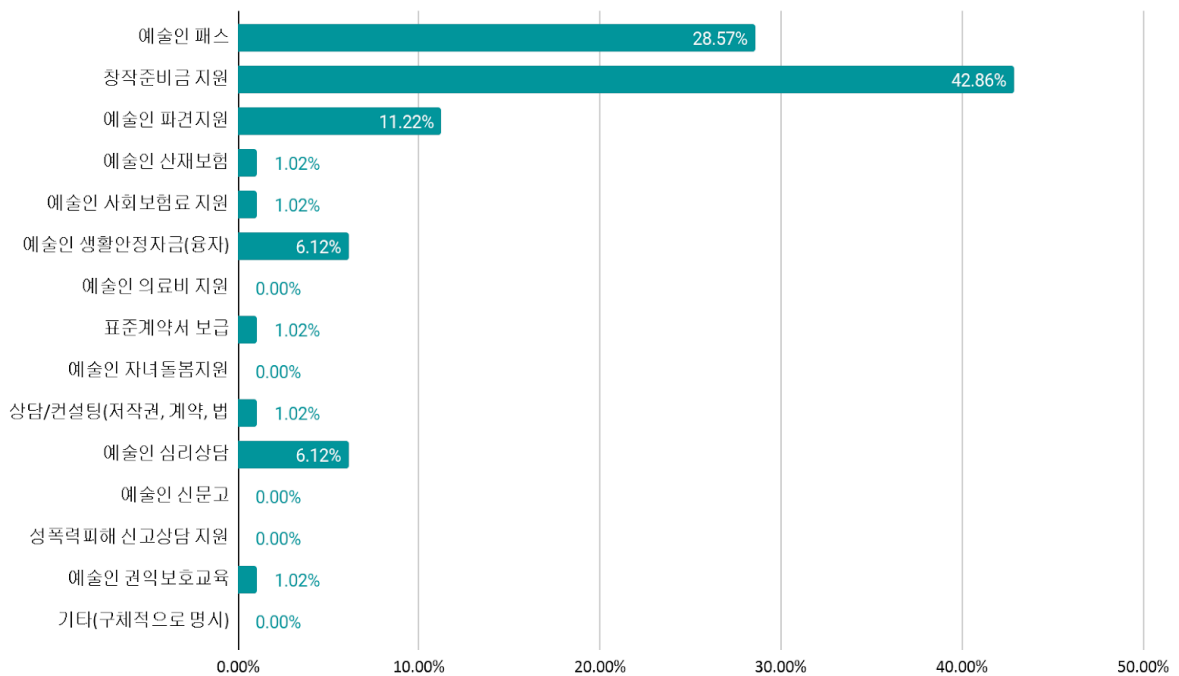
[그림 2-2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지원경험

(단위 : %)



[그림 2-2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참여(수급) 사업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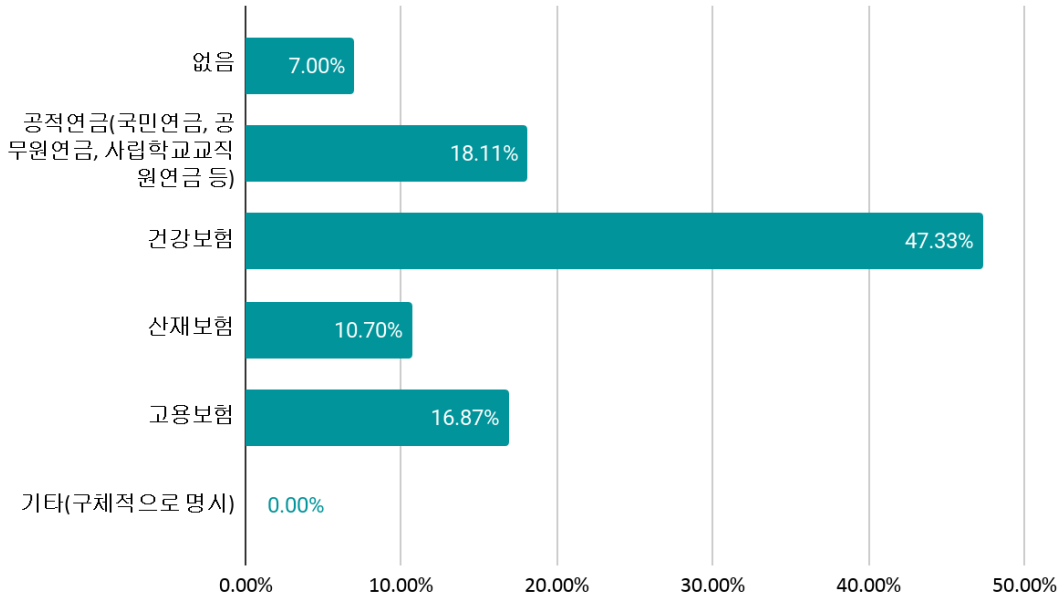


17. 사회보험 가입률(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47.33%, '공적연금' 18.11%, '고용보험' 16.87% 순으로 나타났고 '없음'은 7.0%임

[그림 2-27]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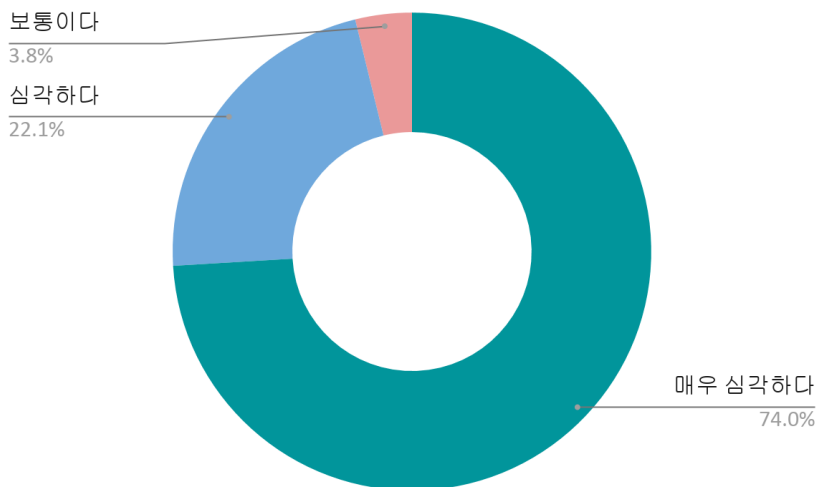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18. '코로나19' 관련 음악노동현장에서 느끼는 피해체감도

⇨ '코로나19' 발생 이후 음악노동현장에서 느껴지는 피해에 대한 응답은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96.1%임

[그림 2-28] '코로나19' 관련 음악노동현장 피해체감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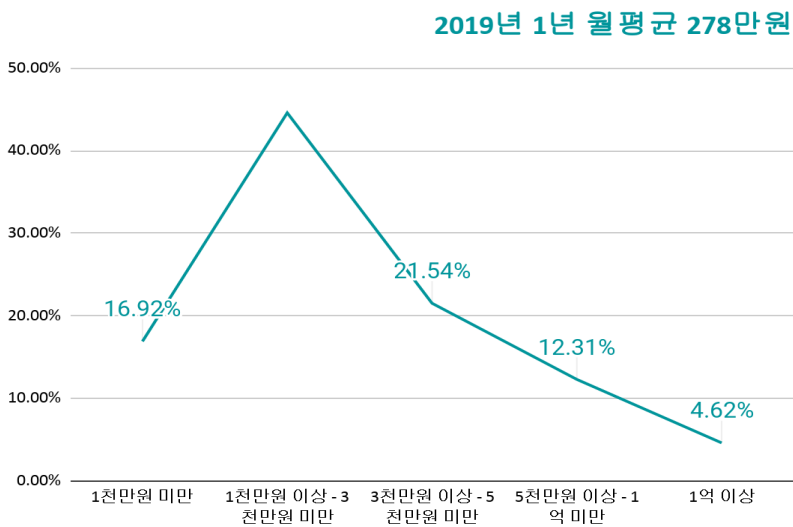
19. '코로나19' 관련 음악인의 가구 총 수입 변화

⇨ 2019년 음악인의 가구 총 수입은 평균 '3,338만원', 월평균은 '278만원'인 반면 2020년 상반기 음악인의 가구 총 수입은 평균 '1,490만원', 월평균은 '248만원'으로 **10.65% 감소함**

- 2019년 음악인 가구 총 수입 중앙값은 '2,480만원', 2020년 상반기 음악인 가구 총 수입 중앙값은 '920만원'임
- 2019년 음악인 가구 총수입 '3천만원 미만'이 61.54%이고 '1억원 이상'도 4.62%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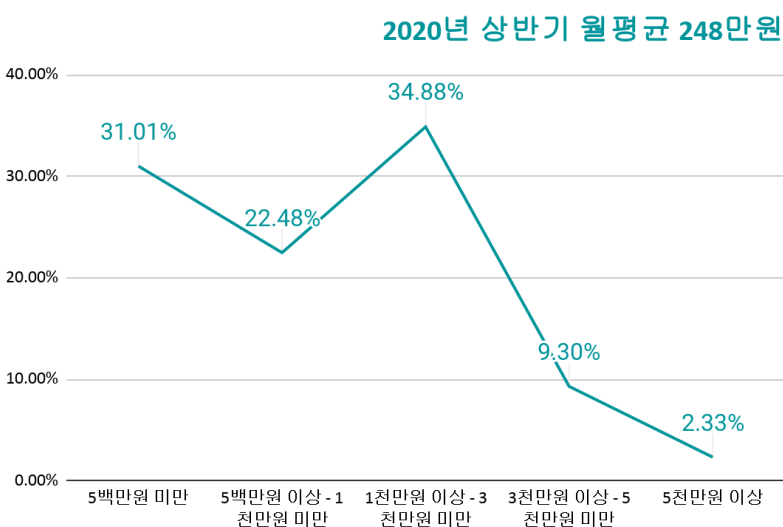
[그림 2-29] 2019년 음악인의 가구 총 수입

(단위 : %)



[그림 2-30] 2020년 상반기 음악인의 총 수입

(단위 : %)



※ 중앙값 : 모든 측정값을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하는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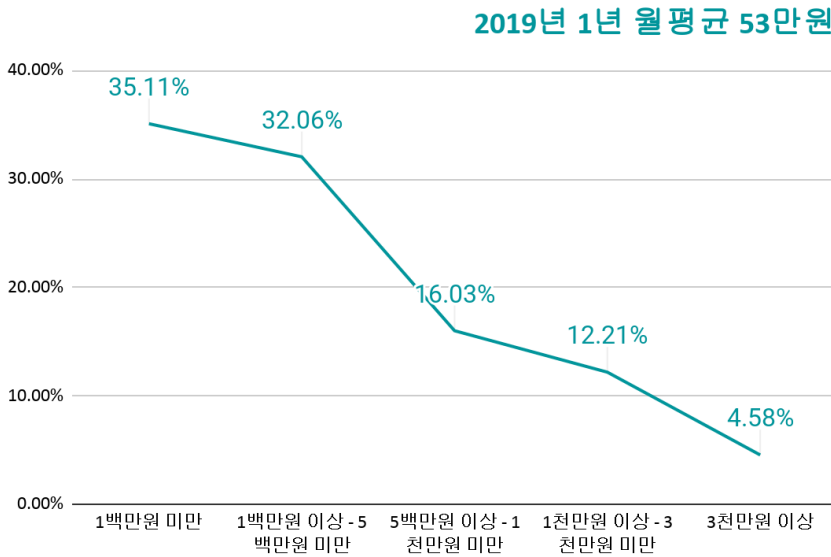
20. '코로나19' 관련 음악인의 음악활동 개인 수입 변화

⇨ 2019년 음악인의 음악활동 개인 수입은 평균 '639만원', 월평균은 '280만원'인 반면 2020년 상반기 음악인의 음악활동 개인 수입은 평균 '190만원', 월평균은 '32만원'으로 **40.11% 감소함**

- 2019년 음악인의 음악활동 개인 수입 중앙값은 '280만원'이고 2020년 상반기 음악인의 음악활동 개인 수입 중앙값은 '62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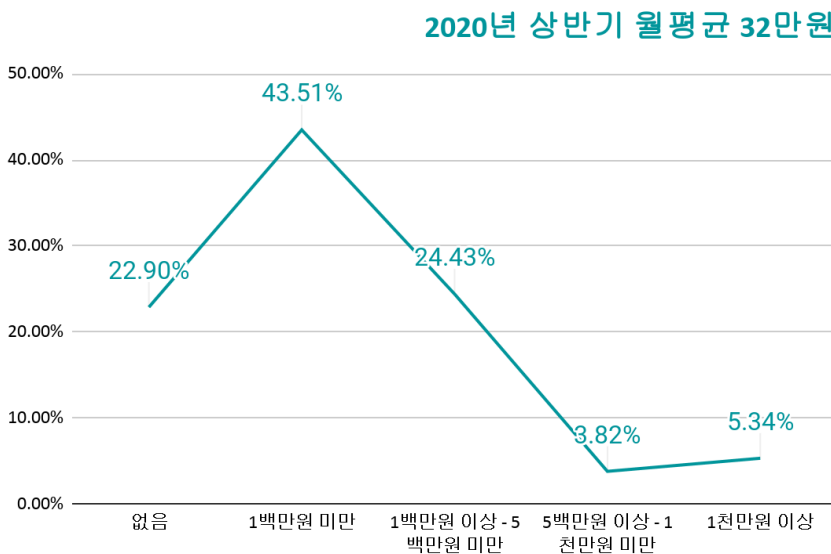
[그림 2-31] 2019년 음악인의 음악활동 개인 수입

(단위 : %)



[그림 2-32] 2020년 상반기 음악인의 음악활동 개인 수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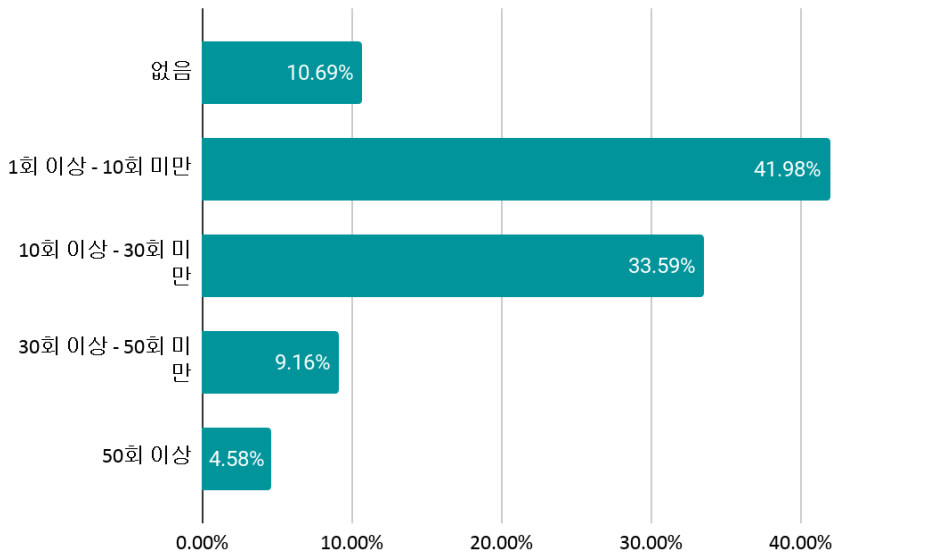
※ 중앙값 : 모든 측정값을 크기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정 가운데 위치하는 값

21. 2019년 1년간 음악활동 발표(공연, 앨범 등) 횟수

↳ 2019년 1년간 음악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15.9회', 월평균 '1.3회'임

[그림 2-33] 2019년 1년간 음악작품 발표 횟수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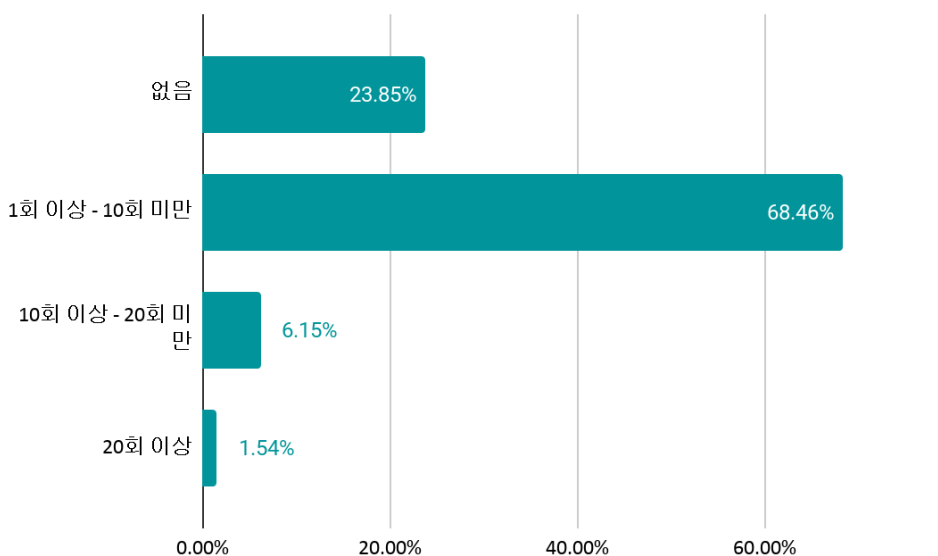


22. 2020년 상반기 음악활동 발표(공연, 앨범 등) 횟수

↳ 2020년 상반기 6개월간 음악작품 발표 횟수는 평균 '4.7회', 월평균 '0.8회'로 2019년 월평균 '1.3회' 대비 **40.7% 감소함**

[그림 2-34] 2020년 상반기 6개월간 음악작품 발표 횟수

(단위 : %)



23.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긴급지원정책 지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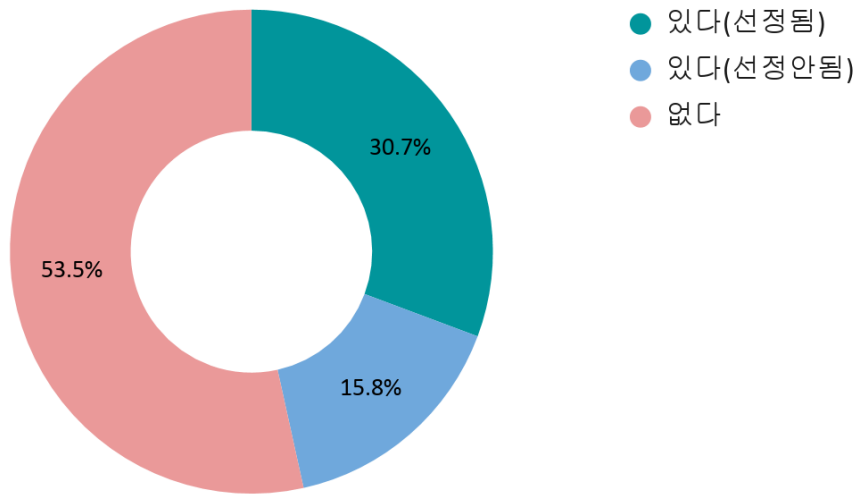
◁ '코로나19' 관련 각종 예술인(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정책에 지원한 음악인은 응답자의 46.53%이고 그 중 지원을 받은 음악인은 지원한 응답자의 65.96%임

- 지원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 자격이 안 되어서'가 64.7%로 가장 높은 순위임
- 서류 지원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소득 기준 증빙이 어려웠다' 33%, '소득 감소 증빙이 어려웠다' 22%, '특고·프리랜서 입증 어려웠다' 22% 순임
- 선정된 응답자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중앙정부' 40.54%, '서울시' 35.14% 순임

[그림 2-35]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긴급지원정책 지원 및 선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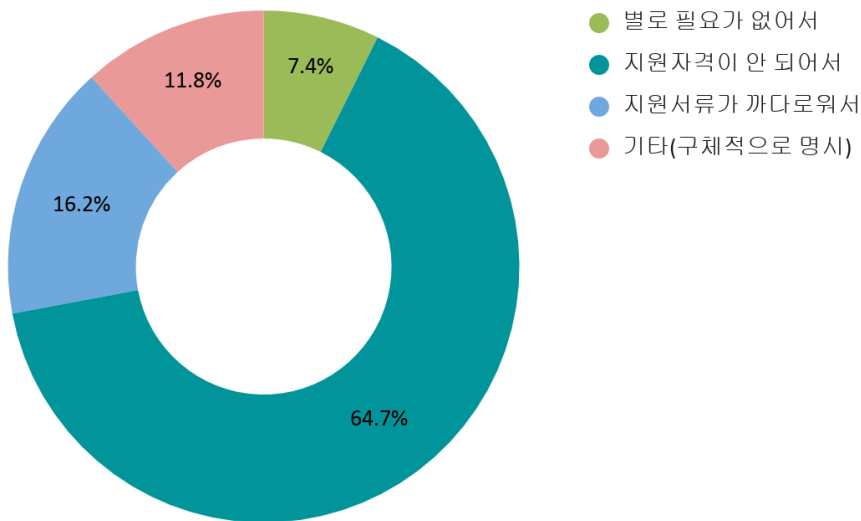
(단위 : %)

있다 46.53% 없다 5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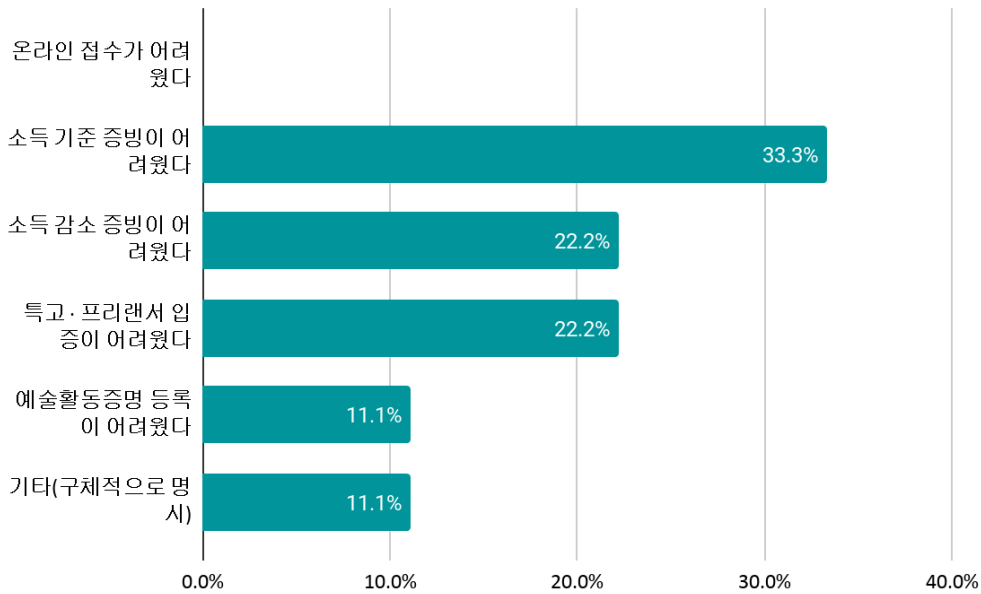
[그림 2-36]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긴급지원정책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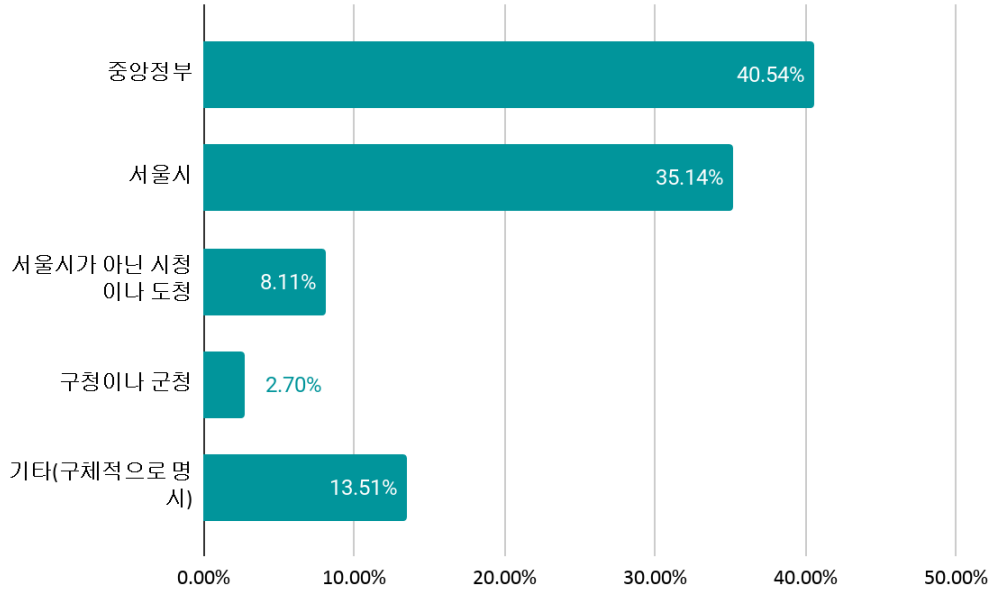
[그림 2-37]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긴급지원정책 지원시 어려웠던 서류 과정 <복수응답>

(단위 : %)



[그림 2-38]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긴급지원정책에 선정된 기관 <복수응답>

(단위 : %)



※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긴급지원정책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의 기타 의견으로는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 있습니다', '창작지원금과 중복이 가능하지 않아서', '부친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 진행, 서류상 높은 재산을 및 부채율(담보 대출)', '보통 계약서 없이 공연을 했으므로 증빙 서류를 만들기가 어렵다' 등이 있음

※ 예술인 긴급지원정책 지원시 어려웠던 서류 과정의 기타 의견으로는 '하기 싫었다 가난증명 인증이'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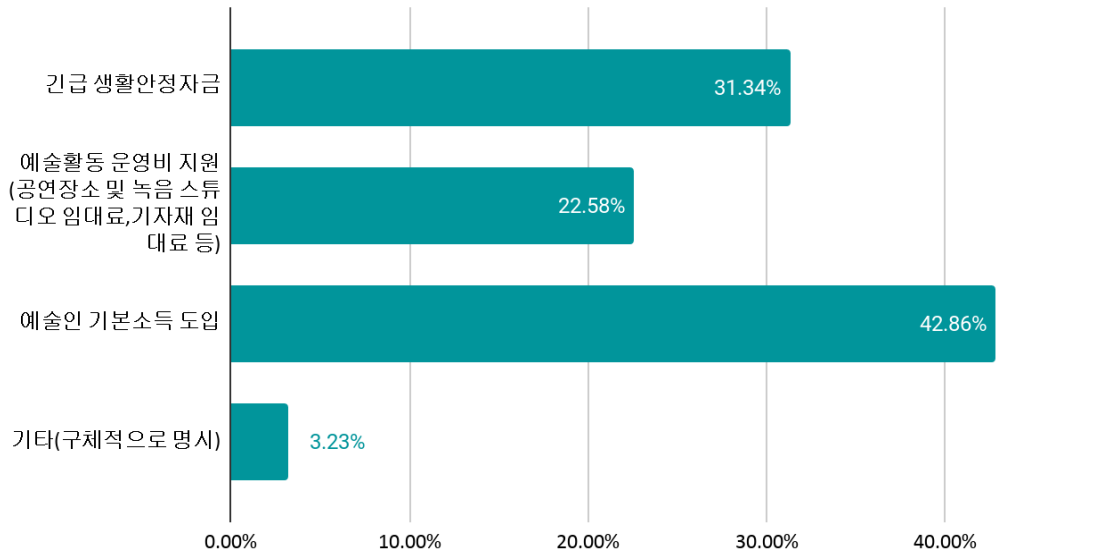
※ 예술인 긴급지원정책에 선정된 기관의 기타 의견으로는 '고용노동부', '문화재단', '울산시 예술인창작지원금' 등이 있음

24.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지원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술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42.86%, ‘긴급 생활안정자금’ 31.34%, ‘예술활동 운영비 지원’ 22.58% 순임

[그림 2-39]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지원방안 <복수응답>

(단위 : %)



※ 기타 의견으로는 ‘창작준비금 방식의 시혜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예술인 지원금이 절실함’, ‘생활안정자금은 쓰면 그만입니다. 공연이나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도 생활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른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예술 전업의 시대보다는 전국민의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연 지원금 (비대면이든 소수입장 공연이든)’, ‘기본소득과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이고 확실하게 의료보험료지원, 주민세지원, 각종 세금에 대한 지원!’, ‘모르겠다’, ‘공연장 폐쇄 해제’ 등이 있음

3장

온라인 설문조사 전체 통계표

1.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분야

구분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서양음악)	크로스오버	합계
1순위	1위	4위	2위	3위	100%/151
	86.8%/131	1.3%/2	7.9%/12	4.0%/6	
2순위	2위	4위	3위	1위	100%/86
	23.3%/20	2.3%/2	11.6%/10	62.8%/54	
순위분석	100%	2.1%	12.1%	23.4%	

- 순위분석 :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비교한 값

2.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분야의 직업

구분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실연자 (연주)	실연자 (가수)	엔지니어 및 기술관련 스태프	프로 듀서	공연 및 음반 기획자	음악예술 관련 관리자	기타	합계
1순위	1위	3위	2위	4위	7위	7위	5위	5위	100% /151
	32.5%/49	27.8%/42	28.5%/43	4.6%/7	0.7%/1	0.7%/1	2.6%/4	2.6%/4	
2순위	1위	2위	3위	1위	5위	4위	7위	6위	100% /136
	39.7%/54	25.7%/35	19.1%/26	2.9%/4	3.7%/5	5.1%/7	1.5%/2	2.2%/3	
순위분석	100%	78.3%	73.7%	11.8%	4.6%	5.9%	6.6%	7.2%	

- 순위분석 :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비교한 값

3.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광주 /전라	부산 /경상	제주	해외	합계
1순위	1위	2위	4위	5위	3위	6위	7위	100% /151
	81.5% /123	6.6%/10	3.3%/5	2.6%/4	4.0%/6	1.3%/2	0.7%/1	
2순위	2위	1위	5위	7위	3위	5위	4위	100% /105
	20% /21	61.9% /65	2.9%/3	1.9%/2	6.7%/7	2.9%/3	3.8%/4	
순위 분석	100%	31.8%	4.9%	3.7%	7.1%	2.6%	2.2%	

- 순위분석 : 각 항목별로 획득한 순위점수(선택자수x순위요율)를 합산한 뒤 최고점수를 획득한 항목을 100으로 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상대비교한 값

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보기	응답	
서울	58.28%	88
인천/경기	29.80%	45
강원/충청권	1.99%	3
광주/전라권	2.65%	4
부산/경상권	4.64%	7
제주	2.65%	4
해외	0.00%	0
총계		151

5. 응답자 연령대

보기	응답	
18세 미만	0.00%	0
19-24세	2.65%	4
25-29세	11.26%	17
30-34세	19.21%	29
35-39세	24.50%	37
40-44세	21.19%	32
45-49세	14.57%	22
50-54세	5.96%	9
55-59세	0.66%	1
60세 이상	0.00%	0
총계		151

6. 응답자 성별

보기	응답	
응답하지 않음	3.31%	5
남성	60.93%	92
여성	35.76%	54
총계		151

7. 주 활동 분야에 입문 후 활동기간

보기	응답	
5년 미만	13.25%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26.49%	40
10년 이상 - 15년 미만	21.19%	32
15년 이상 - 20년 미만	17.22%	26
20년 이상 - 25년 미만	17.22%	26
25년 이상 - 30년 미만	2.65%	4
30년 이상	1.99%	3
총계		151

8. 전업 음악인 종사 여부

보기	응답	
전업	52.67%	79
겸업	47.33%	71
총계		150

9. 전업 음악인 음악활동 직업의 고용형태 [복수응답]

(겸업음악인=71,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정규직	3.75%	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자)	17.50%	1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25%	1
프리랜서(자유계약직)	73.75%	59
계약직/기간제/임시직/축탁직	8.75%	7
파트타임/시간제	6.25%	5
일용직	10.00%	8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25%	1
총 응답자 수: 80		

10. 겸업 음악인 음악활동 직업의 고용형태 [복수응답]

(겸업음악인=71,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정규직	0.00%	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자)	16.90%	1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82%	2
프리랜서(자유계약직)	59.15%	42
계약직/기간제/임시직/축탁직	5.63%	4
파트타임/시간제	2.82%	2
일용직	8.45%	6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1.27%	8
총 응답자 수: 71		

11. 겸업 음악인 음악활동 외 직업의 예술분야 여부

(겸업음악인=71)

보기	응답	
예술관련 분야	42.25%	30
비예술관련 분야	57.75%	41
총계		71

12. 겸업 음악인 음악활동 외 직업의 고용형태 [복수응답]

(겸업음악인=71,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정규직	21.13%	1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자)	12.68%	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82%	2
프리랜서(자유계약직)	28.17%	20
계약직/기간제/임시직/촉탁직	26.76%	19
파트타임/시간제	11.27%	8
일용직	9.86%	7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4.23%	3
총 응답자 수: 71		

13. 겸업 음악인 음악활동 외 직업의 업무내용 [복수응답]

(겸업음악인=71,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강사/강의	30.00%	21
자영업	11.43%	8
노동/노무	14.29%	10
관리직	4.29%	3
사무직	12.86%	9
기술직	5.71%	4
전문직	17.14%	12
기획/제작	18.57%	13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5.71%	11
총 응답자 수: 70		

14. 음악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

(겸업음악인=71)

보기	응답	
고용 불안정	14.29%	10
낮은 소득	57.14%	40
불규칙한 소득	21.43%	15
열악한 작업환경	0.00%	0
활동 분야와의 연결성	5.71%	4
기타	1.43%	1
총계		70

15. 겸업 음악인 음악활동에 투입되는 주 평균 노동시간

(겸업음악인=71)

보기	응답	
7시간 미만	42.86%	30
7시간 이상 - 28시간 미만	45.71%	32
28시간 이상 - 49시간 미만	7.14%	5
49시간 이상	4.29%	3
총계		70

16. 겸업 음악인 음악 외 활동에 투입되는 주 평균 노동시간

(겸업음악인=71)

보기	응답	
7시간 미만	7.14%	5
7시간 이상 - 28시간 미만	31.43%	22
28시간 이상 - 49시간 미만	48.57%	34
49시간 이상	12.86%	9
총계		70

17. 지난 1년간 공연 실연 경험 유무

보기	응답	
있다	86.00%	129
없다	14.00%	21
총계		150

18. 지난 1년간 1회 공연으로 들어온 최저수입

(실연 경험 음악인=129)

보기	응답	
10만원 미만	53.13%	68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40.63%	52
5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56%	2
8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0.78%	1
100만원 이상	3.91%	5
총계		128

19. 최저수입 공연의 러닝타임

(실연 경험 음악인=129)

보기	응답	
15분 미만	11.72%	15
15분 이상 - 30분 미만	45.31%	58
30분 이상 - 60분 미만	30.47%	39
60분 이상	12.50%	16
총계		128

20. 최저수입 공연의 연습기간

(실연 경험 음악인=129)

보기	응답	
1주일 미만	26.77%	34
1주일 이상 - 2주일 미만	27.56%	35
2주일 이상 - 한 달 미만	28.35%	36
한 달 이상 - 두 달 미만	8.66%	11
두 달 이상	8.66%	11
총계		127

21. 지난 1년간 1회 공연으로 들어온 최고수입

(실연 경험 음악인=129)

보기	응답	
50만원 미만	48.44%	62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9.69%	38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7.19%	22
200만원 이상	4.69%	6
총계		128

22. 최고수입 공연의 러닝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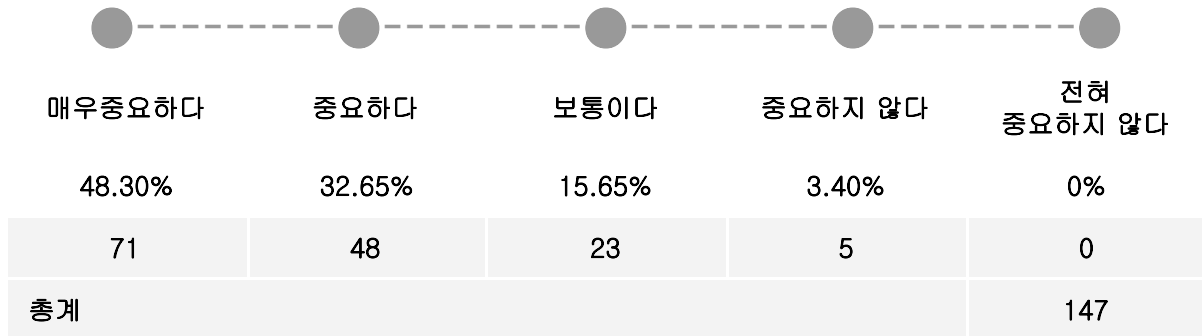
(실연 경험 음악인=129)

보기	응답	
15분 미만	6.25%	8
15분 이상 - 30분 미만	25.78%	33
30분 이상 - 60분 미만	39.06%	50
60분 이상	28.91%	37
총계		128

23. 최고수입 공연의 연습기간

보기	응답	
1주일 미만	13.28%	17
1주일 이상 - 2주일 미만	19.53%	25
2주일 이상 - 한 달 미만	38.28%	49
한 달 이상 - 두 달 미만	15.63%	20
두 달 이상	13.28%	17
총계		128

24. 음악활동 노동 진행시 체감하는 계약 체결 중요도



25. 지난 1년간 음악활동 관련 계약 체결 유무

보기	응답	
있다	54.79%	80
없다	45.21%	66
총계		146

26. 지난 1년간 음악활동 관련 계약 체결 건수

(계약 체결 경험자=80)

보기	응답	
1회 이상 - 5회 미만	75.32%	58
5회 이상 - 10회 미만	16.88%	13
10회 이상 - 20회 미만	6.49%	5
20회 이상	1.30%	1
총계		77

27. 지난 1년간 음악활동 관련 체결한 계약의 형식 [복수응답]

(계약 체결 경험자=80,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서면 계약	88.31%	68
구두 계약	35.06%	27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0.00%	0
총 응답자 수: 77		

28. 구두 계약 체결시 서면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계약 체결 경험자=80,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서면계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4.56%	14
계약서 작성 방법을 잘 몰라서	5.26%	3
정서적으로 불편하다고 느껴서	8.77%	5
서면계약을 제안하면 계약이 취소될까봐	17.54%	10
계약서를 제안받지 않아서	59.65%	34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8.77%	5
총 응답자 수: 57		

29. 서면 계약 체결시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경험 유무

(계약 체결 경험자=80)

보기	응답	
있다	48.00%	36
없다	52.00%	39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0.00%	0
총계		75

30.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건수

(서면계약 체결 경험자=68)

보기	응답	
1회	38.89%	14
2회 이상 - 5회 미만	55.56%	20
5회 이상 - 10회 미만	5.56%	2
10회 이상	0.00%	0
총계		36

31. 계약 내용에 연습기간이 포함된 계약 체결 건수

(계약 체결 경험자=80)

보기	응답	
없음	83.56%	61
1건 이상 - 5건 이하	16.44%	12
5건 이상 - 10건 이하	0.00%	0
10건 이상	0.00%	0
총계		73

32. 지난 1년간 체결한 계약 중 부당계약 여부

(계약 체결 경험자=80)

보기	응답	
있다	33.78%	25
없다	66.22%	49
총계		74

33. 계약이 부당하다고 느낀 이유

(부당계약 체결 경험자=25)

보기	응답	
저작권 침해/구분 모호	0.00%	0
불확실/불합리한 업무 규정	23.08%	6
임금 미지급/체납	11.54%	3
일방적/부당한 임금 규정/낮은 임금	42.31%	11
일방적/부당한 해고/계약해지	15.38%	4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7.69%	2
총계		26

3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활동증명 등록 여부

보기	응답	
등록	64.54%	91
미등록	35.46%	50
총계		141

35. 활동증명을 미등록한 이유 [복수응답]

(예술인활동증명 미등록 음악인=50,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알지 못해서	51.02%	25
증빙서류 준비 등 절차가 까다로워서	28.57%	14
인터넷 이용이 어려워서	0.00%	0
음악분야 신청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20.41%	10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4.29%	7
총 응답자 수: 49		

36.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사업 지원 경험의 여부

(예술인활동증명 등록 음악인=91)

보기	응답	
있다	75.82%	69
없다	24.18%	22
총계		91

37. 지원했던 사업의 종류 [복수응답]

(지원사업 지원경험 있는 음악인=69,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예술인 패스	66.67%	46
창작준비금 지원	92.75%	64
예술인 파견지원	23.19%	16
예술인 산재보험	1.45%	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2.90%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11.59%	8
예술인 의료비 지원	0.00%	0
표준계약서 보급	4.35%	3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1.45%	1
상담/컨설팅(저작권, 계약, 법률, 노무 등)	1.45%	1
예술인 심리상담	8.70%	6
예술인 신문고	1.45%	1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지원	0.00%	0
예술인 권익보호교육	1.45%	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45%	1
총 응답자 수: 69		

3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선정 (수급) 여부

(지원사업 지원경험 있는 음악인=69)

보기	응답	
있다	71.01%	49
없다	28.99%	20
총계		69

39. 선정된 지원사업의 종류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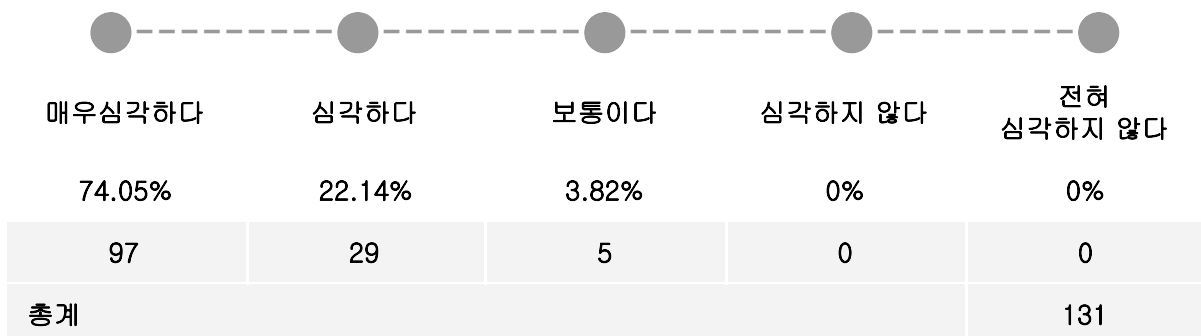
(지원사업 선정 경험 있는 음악인=49,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예술인 패스	58.33%	28
창작준비금 지원	87.50%	42
예술인 파견지원	22.92%	11
예술인 산재보험	2.08%	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2.08%	1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용자)	12.50%	6
예술인 의료비 지원	0.00%	0
표준계약서 보급	2.08%	1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0.00%	0
상담/컨설팅(저작권, 계약, 법률, 노무 등)	2.08%	1
예술인 심리상담	12.50%	6
예술인 신문고	0.00%	0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지원	0.00%	0
예술인 권익보호교육	2.08%	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0.00%	0
총 응답자 수: 48		

40. 가입되어 있는 사회보험 종류

보기	응답
없음	12.23% 17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31.65% 44
건강보험	82.73% 115
산재보험	18.71% 26
고용보험	29.50% 4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0.00% 0
총 응답자 수: 139	

41. '코로나19'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의 체감도



42. 2019년 연간 가구 수입 (가구원 전체)

보기	응답
1천만원 미만	16.92% 22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4.62% 58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21.54% 28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12.31% 16
1억 이상	4.62% 6
총계	130

43. 2019년 음악활동 관련 개인 수입

보기	응답	
1백만원 미만	35.11%	46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32.06%	42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6.03%	21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12.21%	16
3천만원 이상	4.58%	6
총계		131

44. 2019년 예술활동 발표 횟수

보기	응답	
없음	10.69%	14
1회 이상 - 10회 미만	41.98%	55
10회 이상 - 30회 미만	33.59%	44
30회 이상 - 50회 미만	9.16%	12
50회 이상	4.58%	6
총계		131

45. 2020년 상반기 가구 수입 (가구원 전체)

보기	응답	
5백만원 미만	31.01%	40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22.48%	29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34.88%	45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9.30%	12
5천만원 이상	2.33%	3
총계		129

46. 2020년 상반기 음악활동 관련 개인 수입

보기	응답	
없음	22.90%	30
1백만원 미만	43.51%	57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24.43%	32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3.82%	5
1천만원 이상	5.34%	7
총계		131

47. 2020년 상반기 예술활동 발표 횟수

보기	응답	
없음	23.85%	31
1회 이상 - 10회 미만	68.46%	89
10회 이상 - 20회 미만	6.15%	8
20회 이상	1.54%	2
총계		130

48. 2020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긴급지원정책 인지 여부

보기	응답	
알고 있다	77.10%	101
모른다	22.90%	30
총계		131

49.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지원 여부

(긴급지원정책을 알고 있는 음악인=101)

보기	응답	
있다	46.00%	46
없다	54.00%	54
총계		100

50. 지원정책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긴급지원정책에 지원하지 않은 음악인=54,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별로 필요가 없어서	9.09%	5
지원자격이 안 되어서	80.00%	44
지원서류가 까다로워서	20.00%	1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4.55%	8
총 응답자 수: 55		

51. 지원자격이 안 된 이유 [복수응답]

(지원자격이 안 된다고 응답한 음악인=44,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26.19%	11
특고·프리랜서 입증 서류가 없어서	23.81%	10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없어서	21.43%	9
다른 지원을 받아서(육아보조, 실업급여 등)	2.38%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30.95%	13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16.67%	7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9.52%	4
총 응답자 수: 42		

52. 특히 어려웠던 서류 과정 [복수응답]

(지원서류가 까다롭다고 응답한 음악인=11,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온라인 접수가 어려웠다	0.00%	0
소득 기준 증빙이 어려웠다	75.00%	3
소득 감소 증빙이 어려웠다	50.00%	2
특고·프리랜서 입증에 어려웠다	50.00%	2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어려웠다	25.00%	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25.00%	1
총 응답자 수: 4		

53.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사업의 선정 여부

(긴급지원정책에 지원한 음악인=46)

보기	응답	
선정되었다	65.96%	31
선정되지 않았다	34.04%	16
총계		47

54. 선정된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복수응답]

(긴급지원정책에 선정된 음악인=31,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중앙정부	48.39%	15
서울시	41.94%	13
서울시가 아닌 시청이나 도청	9.68%	3
구청이나 군청	3.23%	1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16.13%	5
총 응답자 수: 31		

55.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음악인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방안
[복수응답]

(%=케이스퍼센트)

보기	응답
긴급 생활안정자금	51.91% 68
예술활동 운영비 지원(공연장소 및 녹음 스튜디오 임대료,기자재 임대료 등)	37.40% 49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70.99% 93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5.34% 7
총 응답자 수: 131	

4장

2020
뮤지션유니온
독립음악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2020년 대한민국, 독립음악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020 뮤지션유니온 독립음악인 실태조사

책임연구원 정혜숙

보조연구원 이수진

장연호

「2020년 독립음악인 실태조사」는 독립음악인들의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음악산업 내의 공정계약 체결을 위한 독립음악인 표준계약서의 양식 확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독립음악인들을 포함한 예술인들의 권익보호와 기본적인 권리신장, 복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가 있다. 마지막 조사결과 보고서는 2018년에 발표되었다. 전국의 예술인 중 178,540명을 모집단으로, 그 중 5000명을 표본집단으로 한 조사에서 주 활동 예술분야가 ‘대중음악’인 예술인은 710명, 14.2%였다. 물론 이 수치는 ‘독립음악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뮤지션유니온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적은 ‘독립음악인’에 대한 조사가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휩쓸고 모든 삶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현 시점에 실태조사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부터 기획·준비에 들어가서 8, 9월에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했고 11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집계하고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 ‘심각하다’ 96.2%

- 음악활동 수입 - 2019년 월 평균 53만원, 2020년 상반기 월 평균 32만원

표본집단이 된 조사대상자 151명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분야의 직업은 1위 ‘작사가,작곡가,편곡자’, 2위 ‘실연자(연주)’, 3위 ‘실연자(가수)’로 나타났다. 이 중 90%는 1가지 이상의 음악분야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었고 이들의 2019년 월 평균 음악활동 개인 소득은 53만원, 월수입이 83만원(연수입 1천만원)¹ 이하인 음악인이 83.3%로 집계됐다. 참고로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은 연간 3,521만원, 월평균 293만원이 조금 넘는다.² 이 결과만으로도 독립음악인들의 음악활동 소득수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대면예술로 주된 활동을 이어 오던 독립음악인들은 2020년 들어서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취소 사례가 이어졌고 이는 실질적인 소득수준 감소에 직격타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음악활동 개인 소득 32만원으로 전년대비 40.11% 감소했고, 월수입이 83만원 이하인 음악인이 90.84%로 집계됐다.

또한 독립음악인들의 음악활동 개인 소득의 감소 비율은 음악활동 발표 횟수의 감소폭과 거의 일치한다. 2019년 6개월 평균 7.9건의 음악활동 발표를 한 것에 비해 2020년 상반기 6개월 평균 4.7건의 음악활동 발표를 했고 전년대비 감소폭은 40.7%이다. 그만큼 독립음악인들의 음악활동 개인 소득은 음원사용료나 저작권료 등 보다 공연, 앨범 발매 등의 음악 활동 발표 횟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수치로 보여지는 심각한 상황은 비단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태조사의 또 다른 방법, ‘오프라인 간담회’와 ‘심층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인의 기획공연이나 섭외공연을 주로 하던 음악인이나 해외페스티벌에 참여하기로 했던 음악인, 영화음악을 만들기로 했던 음악인 등 많은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큰 타격을 입었고, 음악활동이 아니더라도 음악교육 강사, 체육관 코치, 행사 대행업체 무대·기술 스텝 등 겸업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서 수입이 크게 줄어 든 음악인도 많았다. 특히 무대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상황에서 ‘세션’음악인으로 살아가던 연주자들은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진 상황이었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에 입문한 뒤 활동한 기간은 평균 13.28년이다. 또한 전업 음악인이 전체 응답자의 52.67%에 달한다. 10여년이 넘게 몸담고 일해 온 독립음악인들에게 노동환경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¹ * 한국고용정보원 ‘2017 한국의 직업정보’ 중 가장 연봉이 낮은 직업 - 시인(1천만원)

* 고용노동부 고시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연봉 21,543,720원(주 40시간 노동 기준, 주휴수당 제외)

²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인당 실질(명목) 국민총소득 = 실질(명목) 국민총소득 ÷ 총인구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년 기준)」 중

음악활동 관련 노동에 대한 지급기준 필요

- 강요된 '재능기부'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관행 근절해야

지난 1년간 공연으로 들어 온 최저 수입의 공연 시간이 평균 34.16분, 최고 수입의 공연 시간이 45.53분이었고 최저 수입의 평균 연습기간은 20.18일, 최고 수입의 평균 연습기간은 27.55일로 집계됐다. 공연 시간은 약 11분, 연습기간은 약 일 주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반면 공연으로 들어 온 최저수입 금액은 50만원 미만이 93.76%였고 그 중 53.13%가 10만원 미만을 받았다. 최고수입의 경우에도 평균 금액은 71.88만원이었지만 응답자의 48.44%는 50만원 미만을 받았다. 2020년 현재, 음악인들이 최소 20여일에 걸쳐 준비하고 30분 넘는 시간 동안 무대 실연을 하는 노동의 대가는 이렇게 참담한 수준이다. 또한 부당 계약을 경험한 응답자가 꼽은 부당 계약의 원인 1위는 42.31%로 '일방적·부당한 임금규정/낮은 임금'이었다.

이 수치를 통해 독립음악인들의 급여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은 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일일 것이다. 특히 강요된 '재능기부', 출연료 없는 '버스커 모집' 등 지자체마저 독립음악인을 비롯한 예술가들을 이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행이다.³ 적어도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만이라도 현재 인건비 지급기준(서울시 강사수당 지급기준표 등)을 통해 외부인력을 섭외하듯이 공연섭외 역시 지급기준을 갖추고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 긴급지원사업, 까다롭고 어려운 신청절차

- 지원사업 신청 이후 선정된 독립음악인은 응답자 중 20.5%에 그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를 비롯, 다양한 지자체와 재단들이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쳤고 그 중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독립음악인들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정책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7%였지만 실제로 지원정책에 지원을 한 응답자는 46%에 그쳤다. 지원정책을 알면서도 지원하지 않은 응답자의 80.9%는 '지원자격이 안 되어서', '지원서류가 까다로워서'를 미지원의 이유로 꼽았다. 특히 가장 어려웠던 지원서류로는 '소득기준 증빙(33.3%)', '소득감소 증빙(22.2%)', '특고·프리랜서 입증(22.2%)' 등을 꼽았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 '특고·프리랜서' 부분의 지원대상, 지원자격요건 및 소득감소요건을 살펴보자.

³ 자료 출처: "재능 기부? 재능 착취 아닌가" 시대착오적인 송파구청의 버스킹 모집(데일리안/2020.02.18/이한철 기자)
<https://m.dailian.co.kr/news/view/869287>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⁴

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아래의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자격요건

⁴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1Info.do>

- ○ 특고·프리랜서로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이 소득이 있으면서,
- ↳ 증빙서류('19.12~'20.1월 중 소득자료, 택1)
-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5]
-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 ↳ 증빙서류('19년 연소득 자료, 택1) * 모든 소득을 제출해야 함에 유의
-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2. 소득감소요건

- ○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 비교대상 기간과 '20.8월,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 다만, 예외적으로 '20.8월, '20.9월 소득이 각각 9월,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
- (예: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 ①'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택1(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 ↳ 증빙서류('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자료, 택1)
-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노무미제공확인서[서식6]와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또는 9월의 모든 입금내역 제출

3. 우선순위

-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①연소득,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우선순위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

'19. 12~'20.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서 이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①~④에 해당하는 서류(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용역 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를 낸다는 것은 꼭 서면 계약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누군가와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개인간 거래는 해당 서류 제출 기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음악활동 관련 노동의 고용형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업음악인의 73.75%, 겸업음악인의 59.15%가 프리랜서이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음악활동 계약의 경험이 있는 음악인은 59.79%, 그나마도 계약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92.2%가 연간 계약 체결 건수를 10회 미만(서면계약 및 구두계약 포함)이라고 답했고 이는 월 평균 1건이 채 안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해 본 응답자 중 83.56%는 계약 내용 안에 연습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즉, 계약의 내용 중 '노무를 제공한 기간'에 '연습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9. 12~'20.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서 이에 대해 증명을 한다는 건 독립음악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노무 제공 관련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계약문화에 취약하고 개인간 거래(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없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독립음악인들의 음악활동 관련 노동환경 현실에서 구비하기 쉽지 않은 서류들이다.

또한 이 서류들을 다 준비해낸다고 해도 '고용보험 미가입자', '과세대상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세대대상 지원금)'라는 조건이 기다리고 있다. 음악활동 관련 직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임시직, 계약직 등 소위 '알바'를 이어오면서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되어 있는 음악인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음악인들은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예술관련 사업이나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고 1인 사업장을 운영중인 음악인들은 이미 신청자격 미달이다. 이 모든 과정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선별적 지원임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라고 해도 독립음악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한 정책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외에도 지자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에서 진행한 사업들이 있다. 그러나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지원사업의 내용은 기획자의 인건비 명목 지출이 매우 어려운 '기획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음악활동을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독립음악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자금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자금이다.

이번 실태조사 중 온라인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음악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방안[복수응답]'이었다.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선택한 응답자가 70.99%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긴급 생활안정자금'로 51.91%였다.

정부는 독립음악인을 비롯한 예술인 전반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말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별적 지원의 근거자료가 되기도 하고 건강한 음악활동 노동환경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표준계약서'의 확대와 의무화가 시급하다. '표준계약서'의 경우 편의성을 고려하여 각 음악활동의 조건에 따른 간소화된 형식(핸드폰 App이나 이메일, 계약전용 사이트를 통한 간략한 체결방식 등)도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건강한 계약문화가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